質屋業者에게

孟子ㅣ曰矢人이엇지函人보다不仁ᄒᆞ리오마는矢人은惟恐不傷人ᄒᆞ고函人은惟恐傷人ᄒᆞᄂᆞ니故로術을可愼치아니치못ᄒᆞᆯ거시라ᄒᆞ얏다 …

[illegible]

印度人의 大會 (上)

[illegible]

列强의 商業主義 (五)

大西洋과 太平洋

英吉利가 …

[illegible]

桂屋漫筆

俳語雜選 (十三)

桂下散人

[illegible]

詞藻

光武臺觀劇雜詠

青吾

其一 … 其二 … 其三 … 其四 … 其五 … 其六 …

[illegible]

浮雲 (八)

두게네프 原作 瓢虛生 譯

[illegible]

世界奇聞

紙幣는 休紙라

[illegible]

淋疾

京城府樂園洞一九八番地 濟衆醫院

梅毒

陰歲暮大賣出

壹月廿八日 全部差換

一、米國政府委托映畵 實寫 …
一、喜劇 中氣한老爺 全一卷
一、情話悲劇 醫師와女 全六卷
一、第七回 深夜의人 第三篇第四篇 卷四
第十三篇 力戰奮鬪 第十四篇 災々흔焰

優美館 電話 一三六番

喚友鶯

實價二十五錢 郵稅金二錢

京城鍾路三丁目十六番地 廣文書市

殺菌大王梅毒丸

定價 二週日分 … 五週日分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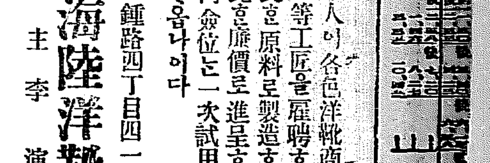
製造本舖 京城府 … 漢城藥館

海王星

佛文豪 뮈ー마 先生의 世界的大傑作

紙質上等 印刷精密 製册美麗

發賣元 … 廣益書館 / 分賣所 …



今般本人이各色洋靴商을ᄒᆞ옵는바 一等工匠을雇聘ᄒᆞ고品質이優良ᄒᆞᆫ原料로製造ᄒᆞ와時勢에無比ᄒᆞᆫ廉價로進呈ᄒᆞ겟사오니海內僉位는一次試用ᄒᆞ심을伏望ᄒᆞ옵나이다

京城鍾路四丁目四一番地 海陸洋靴店 主 李演球

朝鮮藥酒 金鶴酒

金鶴酒의 四大特色

京城特約店 海東館 白 電話 …

天一藥房

自働車運轉手養成所

入學期日 每月五日以內 / 卒業期限 二個月

歐米情報

最高會議終了됨
從來巴里에셔 開催中이든 聯合國最高會議는 圓滿히게 終了되얏더라(巴里電)

對獨武裝解除問題
獨逸의 武裝解除에 關한 決定的通告가 不久에 出布되리라더라(巴里電)

獨逸賠償額決定
總額二千億馬克平
巴里國際最高會議는 二十九日에 終了되얏는듸 獨逸의 交戰國에 支佛할 賠償金은 總額二千億馬克으로 決定되엿다더라(巴里電)

最高會議의 產物
「에、라」兩國正式承認決議
一月廿六日午後에 發表된 公報에 依하면 最高會議는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를 卽時正式으로 承認하기로 議決하엿스며 又「리토아니아」承認問題에 就하야는 同樣의 見解를 下하엿는듸 承認의 決議를 見함에 不至하엿다 同會議는 又「조지아」가 其承認을 要請하면 此에 承認을 與할 것을 滿場一致로 議決하엿다더라(巴里電)

日米新協定과 日本人
日米新協定에 對하야 在米日本人은 크게 憂慮中이라더라(紐育電)

巴運河防備問題
佛代理公使對米抗議
巴奈馬駐紮佛國代理公使 루페에블氏는 米國務省에 對하야 米國이 巴奈馬運河地帶를 防備하기 爲하야 此를 占領함에 對하야 抗議를 提出하엿는듸 其理由는 巴奈馬地帶는 各國과 商議를 要함에 在하다더라

墨國對外條約破棄
墨西哥新政府는 舊政府의 締結한 對外條約全部를 破棄할 旨로 各國政府에 對하야 通牒을 發하얏더라(紐育電)

濠洲는 白人濠洲
라고 『마』氏英國에 囑望
濠洲植民開始百三十三年記念日에 際하야 濠洲一流의 新聞記者이고 濠洲聯邦首相 휴우즈氏、親友인 마오딕氏는 倫敦타임스紙에 入要左한 論文을 寄하엿더라(倫敦電)

全英帝國의 地圖에는 未詳하고 또 不可解인 一疑問標가 突然히 規出하엿다 그것은 非他라 事實上全英帝國民은 今後에 서로 密接한 提携를 得保할가 否할가 하는 問題이다 大戰中日本이 『마오샬』 『카로린』 群島를 併呑한 時에 濠洲는 甚大한 苦痛을 感하면서 오히려 全力을 擧하야 영本國을 爲하야 力戰하엿다 然而他日或은 某國과 開戰할 時에는 濠洲는 其海岸線을 距하기 僅々三日航可量되는 距離에서 多數한 海港을 敵手에 委치 안이치 못함에 至하도록 太平洋의 地圖는 不合理한 變化를 生하엿다 然즉 此를 軍事的見地로 言하면 濠洲는 確實히 今回의 大戰에 敗戰하엿슴이다 故로 我濠洲人은 先是에 濠洲가 歐洲에 在한 英本國의 利益을 擁護하라고 奮起함과 如히 將來영本國은 太平洋에 在한 濠洲의 利益을 維持할 覺悟를 하고 잇는與否를 明瞭히 하라하노라 「白人濠洲」政策의 目的은 다만 經濟的利已主義가 안이고 純粹한 人種을 維持하라는 神聖한 主義에 基한 것인즉 濠洲의 求하는 바는 太平洋의 現狀히 萬一의 境遇에 영本國의 武力에 依하야 保障될 것이다 영本國은 果然必要에 應하야 大艦을 建造하고 「白人濠洲」를 爲하야 奮戰할 決心이 잇는가 濠洲는 영本國이 如此한 境遇에 然하다고 答하리라 思惟하고 잇스나 本年六月에 開催될 全영帝國會議에 此議問을 提出할은 다만 濠洲뿐이 안일 것이고 또 영國各自治屬領은 現在自由로온 一國民으로 承認되여 잇는 以上에 영本國은 此意味의 盟約文을 徵置하는 것이 得策일 듯하다

支那政局

中國々民黨成立
孫逸仙氏의 計畫中이든 中國民黨이 成立되야 二十七日廣東에서 成立會를 開催하얏더라

라(上海電)

借欵團과 新規約
上海及北京에 在한 日英米의 借欵團代表는 十八日에 北京政府에 新規約書를 交附하엿다더라(北京電)

周財政總長辭職
財政總長周自齊氏는 辭職하얏는듸 內閣에는 動搖가 無할 듯하더라(北京電)

極東關係

過激派糧道遮斷
滿洲里一帶에는 過激派五六百名의 集團이 잇서 糧道를 遮斷하라함으로 在住支那人에 困狀을 致한다더라(哈爾賓電)

露極東司令官後任
極東司令官後任者는 「시요리」將軍이 任官되엿다더라(哈爾賓電)

王公家規範御諮詢
王公家規範은 近日樞密院에 御諮詢審議에 附하리라더라(東京電)

地方制度改正反對
地方制度改正案에 對하야 政友會內에 有力한 反對가 有하야 形勢는 오히려 逆睹치 못할 狀態에 在하다더라(東京電)

追加豫算提出
東宮御外遊費
加藤海相은 兩三日中에 皇太子殿下의 御外遊費로 四百七十萬圓을 追加豫算으로 하야 目下開會中인 議會에 提出하리라더라(東京電)

昇格問題와 研究會
上院研究會의 學校昇格問題에 對한 態度는 未定임으로 政府는 前途에 難關이 尙在하야 樂觀키 難하더라(東京電)

中橋文相掛冠乎
學校昇格問題에 就하야 東京高等商業學校職員이 總辭職할 時에는 中橋文相은 掛冠하리라 傳하더라(東京電)

新聞紙法改正
新聞法其他出版法改正에 關한 折衷案은 三十日法制局으로 廻附되얏더라(東京電)

總督一行新義州安着
三十日午前九時五十分南大門列車로 西鮮各地巡視의 途에 上한 齋藤總督及隨員赤池警務局長、守屋秘書官、藤波通譯官一行은 同夜九時四十分에 無事히 新義州에 到着되얏는데 某處의 電報가 잇섯는듸 一行은 新義州를 視察한 後三十一日에 義州로 向할 豫定이라더라

改正官制發表遲延理由
總督府官制改正案은 旣히 樞府及閣議를 通過됨에 不拘하고 至今토록 發布가 尙無함은 要컨듸 官制改正에 伴하는 職員의 人選이 色이 完了치 못한 故로 遲延하는 것인듸 其詮衡도 旣히 一段落을 告하엿슴으로 不久明日中에 改正案과 同時에 職員의 任命이 發表되리라더라

產業調查會設立計畫
總督府의 產業政策은 今其徹底的이 되지못함으로 從하야 朝鮮의 產業開發은 名實이 相反됨이 不少한 거슨 總督府當局은 此點에 就하야 何等의 改善을 加하라는 模樣도 姑無함으로 因하야 此際民間에서 朝鮮產業調查會를 設立하고 專히 朝鮮產業의 開發에 努力함이 可하다는 論議가 近時民間實業家側에 唱道됨으로서 京城商業會議所에서는 來月下旬或은 三月上旬에 京城에 全鮮商業會議所聯合會를 開하고 附議實現케 하고저 目下計畫中이라더라

漸次增加되는 水利組合
產業開發上好現象이다
朝鮮開發急務는 一面으로는 教育施設의 擴張充實을 企圖하야 文化의 向上에 致力함과 同時에 他一面에는 灌漑水利事業을 크게 獎勵하야 土地의 改良을 實行함에 在하다 當局에서는 昨年十月에 土地改良課다는 一課를 總督府殖產局에 新設한 事는 屢報와 如하거니와 延하야 各道勸業課에도 大略同樣의 一課를 設置코저 目下準備中에 在한데 朝鮮에 在한 土地改良事業의 一로 其事됨이 時急하다하야 水利組合事業을 獎勵하게 되야 大正六年十月에 水利組合條例란 것을 設하고 其後同八年四月에 水利組合補助規則의 發布를 見함에 至하미 그 規定의 槪要는 水利組合에서 設立코저 할 時 又는 水利組合에서 其區域을 開墾코저 할 時는 府는 本規程에 依하야 事業의 調查를 施行하거나 又는 補助金을 交付하기로 하고 調查의 施行에는 組合區域 又는 開墾區域의 面積을 二百町步以上으로 制限하고 補助金의 交付에는 其二百町步에 未滿한 것과 工事費豫算總額이 四萬圓未滿이 되는 者에게는 本規程을 適用치 아니하되 其補助額은 工事費의 一割五分으로 하얏더니 其後에 더욱 斯業의 獎勵補助할 必要를 認하게 되미 昨年十二月二十七日에 至하야 土地改良補助規程의 發布와 並히 補助規程이 改正된 結果ㅣ 水利事業에 對한 補助金額에 對하야 (一)水田의 灌漑設備改善을 爲하는 者에게는 二割以內 (二)田을 畓으로 變換하야 水田으로 하는 者에게는 二割五分以內 (三)田以外의 土地를 水田으로 하거나 水面을 埋築或은 開拓하야 水田으로 하는 者에게는 三割以內로 하고 補助金의 交付를 受한

土地改良事業에 伴하
는 排水又는 防水에 關한 施設及道路의 新設又는 他의 附屬工事는 前項에 依하야 補助金을 交付하기로 하고 補助金額을 算出할 基礎的工事費는 其地段의 買入代金並利息을 控除하고 總督이 此를 定한다 云함에 在한바 從來의 補助金額一割五分에 對比할 時는 着大한 增率이라 可謂하겟고 昨年末現在調查에 係한 水利組合은 全羅北道五、慶尙南道六、忠淸北道三、平安北道二、慶尙北道一、京畿道四、江原道二、忠淸南道一、合計二十九個所이고 其內에 補助金額改正後의 認可設立을 見함은 江原文幕水利組合과 慶尙南道下東水利組合의 二個所인대 以上

二十五組合의 蒙利區域
은 合計四萬町步가 되고 此事業費總額은 二千萬圓이 된다는데 伊前에는 當局의 慫慂善待하야 비로소 設立을 見하던 것이 最近에 至하야는 民間에서 自發的으로 設立을 申請하는 傾向이 有함에 至하야 今後水利組合은 益々增加할 趨勢인즉 半島產業의 開發上 可慶賀할 만한 現象이라더라

綿布取引問題
從來仁川地方을 爲始하야 鮮內各地의 綿絲布商은 六十日의 期間을 設置하야 互相取引을 行한 것이 昨年財界의 好調代特히 朝鮮人綿絲布商等은 一般으로 輕浮한 氣味도 膨脹한 取引을 行하고 又資力이 貧弱한 人도 不相當한 取引을 行하게 된 結果ㅣ 財產의 變調에 際하야 一頓挫를 致하얏는가 乃終에는 其累를 取引所々지 及케 함에 至하엿는듸 全히 取引期間의 長期됨에 因한 것임으로 京城商業會議所에서는 朝鮮人側은 健實한 商取引을 爲하야 現金取引으로 改치 안할 것이지마는 今에 遽然히 舊習을 打破함이 至難함으로써 먼저 六十日의 期間을 四十日、二十日、十日로 漸次短縮하야 結局現金取引으로 改하자는 朝鮮人側에 對하야 商取引期間을 二十日로 短縮함을 要求하엿더니 朝鮮人側은 三十日로 延長으로써 京城商業會議所가 目下中間에 居하야 斡旋中인즉 結局二十五日可量으로 解決을 見하기에 至하리라더라

水利資金供給
總督府에서는 水利組合獎勵의 目的으로 客年十二月二十七日 水利組合의 補助規程을 改正하고 補助事業을 增加하야 土地改良事業新設로 事는 旣報와 如하거니와 水利資金의 供給에 關하야는 殖銀、東拓의 二社에 再三交涉한 結果ㅣ 來年度殖銀에서 一千萬圓、東拓에서 三百萬圓을 出資하기로 內諾하얏다는듸 貸出利率은 九分三厘로 協定하엿다더라

世界經濟戰準備乎
戰后英國工業界參考價値가 잇다 (上)
戰後영國의 產業界는 或은 政府의 指導에 依하며 或은 當業者의 發奮에 依하야 그 發達에 努力한 만 其諸般의 施設을 試하야 世界의 經濟戰爭의 準備를 堅頓함은 注目할 만한 것이다 戰時中熟練한 職工의 技術이 退步되얏고 就中科學的研究를 等閑에 付하던 것이 戰後의 今日에는 反히 科學的研究에 依賴하야 科學的研究를 中心으로 하는 傾向이 有함은 참 注目할 價値가 잇다

科學的研究局
距今五個年前에 設立된 內務省科學的研究局이 旣히 五個年間에 亘하야 研究生의 補助件數가 百三十六件、自營研究者에 對한 補助件數가 八十六件、大學教授로 하야 금 其研究를 完全케 하기 爲하야 助手雇傭費를 補助한 件가 四十八件、研究室費或은 書記費用에 對한 件數가 八十七件、研究設備支給件數가 四十九件에 達하엿다 尙且此의 給金額을 年度別에 就하야 見하면 一九一六年과 一九一七年에는 三千二百七磅에 不過하더니 三箇年後卽一九二〇年度는 十萬六千七百磅에 達하고 次年卽一九二一年度에는 四萬五千磅으로 豫算하얏스며 此外에 又研究局은 工業會社와 互相提携하고 工業者의 科學的研究를 獎勵하고 業別에 依하야 科學的研究會를 構成케 하야 旣히 成立된 者가 十八에 達하고 目下認可審查中인 者가 五箇所이며 旣設研究會事業費로 國庫로부터 下附된 減基金一萬磅中에서 旣히 消費된 것이 六萬三千八百磅이요 今에 旣設研究協會의 費用으로 約四十五萬磅을 豫算하며 認可審查中인 五箇所에 對한 經費를 約十二萬磅으로 豫算하고 右以外更히 各種의 研究協會를 起하야 近々是等의 研究經費로 八十萬磅에 達할다 함이더라

綿業研究協會
一九一八年六月에 設立된 右研究協會는 二十五磅의 醵金으로써 研究所를 近間設立하고 棉花工業의 根本問題되는 原理原則並應用의 三事項에 科學的研究를 開始할 事이라 諸大學의 專門教授를 會員으로 하야 純然한 學術에 基한 棉花工業의 改良을 計圖하는 中인데 今後研究할 科目에 就하야 表를 列擧하면 如左하다
(一)原棉의 性質及此가 漂白、染色에 使用하는 有機無機의 色素及媒染劑에 關한 反應性
(二)染色藥品이 纖維의 强力並에 及케 하는 反應狀
(三)化合、粘着等의 媒染法의 基礎的變化性
(四)異織纖維의 進展及柔軟性
(五)細胞의 科學的組織
(六)湖의 工程、關한 原料糊와 紡績의 關係
(七)染色法原理
(八)纖維의 長及此의 應力과 緊張力에 基한 變化、纖維相互關係、織布工程에 關한 摩擦、選擇과 此에 對한 紡績의 對抗度의 測定
此研究項目을 見하면 今後영國의 棉花工業은 其天然的氣溫濕潤에 職工의 世襲的熟練을 加한 科學的基礎下에 發達케 하고자 함을 知할 것이니라

棉作獎勵協會
영國棉花耕作獎勵會는 關係者의 熱誠인 運動과 政府의 贊同에 依하야 一九一七年에 遂히 政府保護下에 帝國棉花耕作獎勵設委員을 立會하다 綿織工業當業者의 醵金의 一個年分十萬磅과 政府로부터 補助金一箇年分五萬磅(一九一七年七月브터 以下五個年間)을 得하야 棉花自給事業의 發達에 勉力하야 印度、埃及、스단、메소포타미아 等의 棉花栽培事業을 起하고 近日米國『색라칼』等에 在한 棉花栽培地買收의 計畫이 有하다

學校의 新科目
만지케스타ー工業學校는 幾多의 技術家를 輩出하야 영國工業界에 供하는 바 大規模의 專門學校인데 一九一八年에는 工場經營科인 分科를 特設하고 工場의 科學的經營法을 研究하야 有爲한 工場管理者를 養成에 勉力하는데 今其科目을 示하면 如左하다
(一)心理學과 工業 (二)疲勞의 產出高 (三)事務所管理 (四)工業衛生 (五)勞働 (六)勞働組合 (七)職業의 選擇 (八)工場法 (九)職工의 待遇

朝鮮線荷動狀況
滿鐵京管局의 調查에 依한 客年十二月分朝鮮線의 荷動狀況을 聞한즉 數量과 收入은 左와 如함

	十二月分	前年同月
數量	三三、七五九	三八、五六〇
收入	一〇八、二三〇	一〇三、六四八

此月은 歲末로 因하야 相當히 繁忙한 듯하나 財界는 依然히 渾沌이 域을 脫치 못하고 各取引도 沈滯한 氣味가 有하야 出荷도 如意치 못하야 結局閑散裡에 經過하얏도다 輸送品中米豆는 日本의 不況同盟에 伴하는 價格의 暴落과 天候의 不良한 것은 移出地의 沿線의 凶作을 促進하야 荷動의 激減케 되미 近時稀有한 記錄을 示하고 尙히 製鹽事業의 緊縮에 伴하야 鑛石의 荷動을 阻止하며 前年에 比하야 五割九分餘를 減少하얏스며 其他財貨의 不振은 農民의 購買力減退에 依하야 一般貨物의 荷動도 沈滯하며 就中生活上必需品인 鹽과 如함은 殆히 移動이 無하야 前年同期에 比하면 割除量減少함과 한은 其勢를 規知함에 足할가 하더라

京畿道路完成策
杉京畿道土木課長談
京畿道는 他道에 比하야 其二等道路網의 發達이 顯著하고 三等道路도 亦是縱橫으로 延長함으로 從하야 地方費의 負擔은 一二等道路等의 修繕、三等道路의 維持等에 要하는 費用이 夥多하다 元來一二等의 路는 國費道路이나 其布設과 其橋梁의 架設等을 除하고 常時에 修繕은 地方費의 負擔하는 것이니 九年度에 本道는 約三萬三千圓의 經費를 此에 支出하엿고 又三等道路에 對하야는 一萬五千圓을 支出하엿다 然而每年의 水害及其他를 因하야 道路가 破損될적마다 不可不改修하여야 되겟고 不寧唯是라 三等道路에 至하야는 每以上과 如한 火急을 要하는 改修豫算에 費用이 分割되는 故로 遂히 放擲되야 今日에 至하야는 거의 通行不可能、或은 通行이 無한 三等道路도 잇는 故 然즉 三等道路의 延長計劃은 當分間可望할 바이 안이다 如此히 書類上에는 旣히 改修濟、通行可能의 道路가 實際에는 然치 안한 道路에 對하야 極力修築을 加하야 分道路完成을 計畫中이다 卽此卽事實上의 道路延長이니 然이 改修의 根底는 其財源의 如何에 依하야 左右될 것이나 十年度에는 到底히 吾人의 望함과 如히 費用의 剩餘ㅣ 지 도 못한 것인 故로 地方民의 要求함과 如히 道路의 改善完成을 期하라면 結局起債하야 根本的完成費를 求하여야 된다 然이나 右起債의 件은 目下는 다만 希望됨에 止하고 豫算會議々지 提案될지는 疑問이라더라

徒弟學校建設乎
朝鮮의 商工業은 近來에 顯著히 進步發達되야 各地에는 商工的施設經營의 可見할 者ㅣ 漸々增加됨으로 이를 따라서 此等에 要하는 所謂專門的從事員의 需用도 또한 增加되고 總督府에서는 京城의 工業傳習所를 爲始하야 各地에 商工學校가 建設되야 年々不少한 人材를 養成하나 此等人材中에는 事業主가 되라함과 如한 志望을 抱하는 者가 不少하지만은 資力이 無하고 實力이 無한 所致로 其目的을 達치 못하는 結果ㅣ 專門的教育을 受하엿거날 他方面으로 職을 求하는 者가 多하며 더구나 近時朝鮮人의게 此傾向을 가장 만히 目睹함으로써 總督府에서는 此에 關하야 調查研究中이라더라

鮮銀今期業績
株主配當一割案
朝鮮銀行今期總勘定은 十二月三十一日現在로 調查中인바 遠隔한 支店出張所의 報告가 도다 到着되지 안은 所致로 自然히 遲延되엿더니 日間完成되는 同時에 重役會에 附議決定할 것이고 損益計算並利益分配案은 如左하더라
一金三百五十五萬七千四百二十一圓二十九錢 當期純益金
一金五十萬八千二百十八圓五十二錢 前期繰越金
合計金四百六萬五千六百三十九圓八十一錢

利益分配案
一金八十萬圓 損失補塡準備金、一金八萬圓 配當平均準備金、一金十二萬圓 役員賞與及交際費、金二百五十萬圓 株主配當金(年一割)、金四萬八百三十九圓五十八錢 政府納付金、金五十二萬四千八百二十三錢 後期繰越金

佛領『알제리아』槪況 (八)
朝鮮總督府稅務技師

宗教及教育
『알제리아』의 士人의 全部는 거의 回々教徒이고 土人은 基督教徒에 다 加此히 『알제리아』는 回々教徒及基督教徒의 兩者가 共存하야 土人과 白人은 文化의 程度上大差가 잇고 且其人種도 相異함으로 其教育制度는 結難하다 目下白人及猶太人에게 初等教育은 强制的으로 施行되고 回々教徒에 對하야는 總督의 措置에 一任되미 土人의 教育은 甚히 不振한 段으로 白人과 土人과의 混合教育制度가 有하지마는 人種的偏見과 土人의 教育에 冷淡함으로 因하야 顯著한 效果가 無하다 『알제리아』에는 法科、醫科、理科及文科로 成한 綜合大學一과 回々教徒學校四와 一九六과 他中學教育에 關한 師範學校一、六과 初等學校一、三〇五와 師範學校五(內女子師範二)等의 學校가 有함

司法
『알제리아』의 裁判事務에 關하야 二樣의 制度가 有하니 卽土人式及佛蘭西式이라 土人間의 訴訟은 第一審은 土人裁判官이 判決하고 其次에 佛國式裁判所로 移하며 白人이 關한 訴訟은 모다 佛國式裁判所에서 決定한다 『알제리아』에는 陪審制度가 行하되 土人은 陪審官됨을 不得함으로 各裁判所判決上의 失態又는 刑을 苛酷하게 하는 事이 多하다

國防
『알제리아』의 國防은 母國의 所轄이니 憲兵及警察官으로써 全히 獨立한 約六萬人의 兵員으로써 編成한 一個軍團(三個師團으로)이 有하다 防費는 母國々庫의 負擔에 屬한다 『알제리아』在住佛人은 本國에 在함과 如히 兵務服役의 義務가 잇고 土人도 同一히 兵役에 服할 義務가 有하지마는 其兵數는 一定함으로 抽籤法에 依하야 服役者를 定한다(完)

書記講習開講式
道府郡島書記講習開講式은 三十一日午前九時부터 總督府第二會議室에서 擧行되얏는데 渡邊內務局第一課長의 開會辭에 次하야 水野政務總監代理人事及渡邊第一課長의 注意事項指示及講習員總代의 答辭가 잇슨後 十時半에 散會하고 講習은 本日부터 開始하엿다더라

利益分配案
(see above)

囑託教員講習會
京畿道에서는 今二月一日부터 三十四日々지 四十二日間에 亘하야 道內普通學校에서 道內普通學校囑託教員으로써 第三種教員講習會를 開催할 터인듸 講習員은 各普通學校에서 推薦한 囑託教員으로서 昇格할 資格이 有한 二十五名이라더라

京電重役의 異動
去二十九日東京에서 開催한 京城電氣株式會社定時並臨時株主總會에서는 取締役의 全部를 改選한 結果 營業課長山內篤兆氏는 取締役으로、石博士、白寅氏는 取締役으로부터 監査役에 辭任하고 大村取締役社長과 木村取締役專務는 重任하얏다더라

南鐵第二回拂入
南朝鮮鐵道會社에서는 工事進步上資本金을 要함이 適切하지마는 財界의 不況으로 因하야 今日々지 延期하얏는데 不久에 第二回佛込을 行할 것이고 佛込額은 一株에 對하야 二圓五十錢式總額五十萬圓이오 佛込期日은 三月頃이 되리라더라

人事消息
▲朴斗榮氏(陸軍中佐)는 一週日間豫定으로 三十日午後七時南大門發列車로 慶北方面에 出張
▲徐丙九氏(慶北評議員)는 三十日午後七時列車로 退京

●出張과 歸任
十時雄□氏(技師)는 二十九日부터 水原郡에 出張을 被命함
田中廣吉氏(視學官)는 全北忠南에 出張中이든바 二十八日에 歸任
中島堯之氏(鎭南浦稅關長)은 出府中이든바 十六日에 退京

志賀醫院長歸任
母堂逝去로 因하야 歸國旅行中이든 志賀總督府醫院長은 三十日午後七時五十分着列車로 歸任하얏더라

國分次官歸任
王世子殿下를 祗送하기 爲하야 釜山에 出張하얏든 國分李王職次官은 再昨三十日午後七時五十分着列車로 歸任하얏더라

教科書發賣人定員
一月三十一日附總督府令第二十號로써 朝鮮總督府出版教科用圖書의 發賣人定員規程(同告示第十一號)로써 各郡島에 關한 發賣人定員數가 發布되엿는듸 卽如左하더라
一、京城府 二十人
二、道廳所在地의 府郡 五人
其他府郡島 三人乃至五人

道三部幹部出張
千葉京畿道第三部長은 藤本高等課長以下數名을 帶하고 三十日管內巡視키 爲하야 出張하얏는듸 來六日歸任하겟스며 吉村同部警務課長은 三十日開城에 往하얏다가 昨三十一日歸任하얏다더라

俵氏各學校視察
去二十六日入京하야 朝鮮에 滯在中인 前北海道長官俵孫一氏는 昨三十一日市內壽町高等普通學校、隣商業學校等을 視察하고 今日은 仁川을 視察後明二日에는 다시 京城市內培材學堂、梨花學堂其他官立高等普通學校、女子高等普通學校等을 視察한다더라

和田鐵道部長視察
總督府鐵道部長和田一郞氏는 三十日午後七時三十分發列車로 湖南線視察의 途에 登하얏더라

商況

株式

東京現株
三十一日前場

名稱	
鐘紡	二二五、〇〇
同新	四三、五〇
東拓	五六、五〇
同新	一六、〇〇
郵船	二一五、〇〇
同新	二五、〇〇
殖銀	五三、〇〇
同新	一六、〇〇
東株	二三二、〇〇
同新	一一五、〇〇
東取	三八、〇〇
東毛	一六、五〇
富紡	一八、五〇
鐘紡	二四、〇〇
日紡	九五、五〇

大阪株式
三十一日前場

名稱	寄	引
大株	一三〇、〇〇	一三四、五〇
郵船	七八、九〇	七八、九〇
商船	一三八、〇〇	一三七、八〇
同新	五二、四〇	五二、三〇
鐘紡	六四、一〇	六四、一〇
同新	二二、三〇	……
東紡	二〇、六〇	二〇、八〇
東糖	七七、四〇	……
上取	七五、五〇	……

京城現株市況
(三十一日前場寄付)

名稱	今週中	來週中
京取	一二三、〇〇	一二三、〇〇
殖銀新	一五、三〇	……
東拓新	一七、〇〇	……
東亞新	二六、四〇	二六、五〇
仁取	一五三、〇〇	……
鮮銀	一二五、〇〇	一二五、〇〇
鮮銀新	四二、〇〇	四二、五〇
商銀	四三、二〇	……
商銀新	二一、五〇	……
漢銀	三一、一〇	……
殖銀	五二、二〇	……
韓銀	三一、五〇	……
東拓	五五、八〇	……
土地	……	……
朝紡	一八、六〇	一八、〇〇
滿毛	……	一五、八〇
京電	四七、五〇	……
電興	八二、〇〇	……
東煙	……	……
朝煙	四二、〇〇	……
郵船	……	……
殖鐵	一〇、五〇	……
滿鐵	一一四、〇〇	……
滿鐵	一三、九〇	……

大阪期米
三十一日前場

當	一二六、三九
中	一二六、〇七
(一)	
(二)	、〇四
(三)	、〇六
(四)	、〇六
(五)	、〇三
(六)	一二六、〇〇
(七)	一二五、九四
(八)	一二五、九一
(九)	一二五、九一

仁川期米
●卅一日前場(仁川電話) 一昨日後은 軟軍에 多少活動으로 二十二圓三十一錢에 止한 當限은 受渡後인 故로 大阪氣配亦是一昨日止보다 弱하게 入電되니 軟軍에 受勢로 立會하다
第一節 中限不成에 先限은 二十二圓十六錢이 公定이니 一昨日보다 十丁이 安하고 人氣는 더욱 衰하야 一層下落의 兆를 顯하엿더라
第二節 中限은 二十一圓〇五錢에 一口가 有하고 先限은 回芬에 擺手로 二十二圓十錢에 寄하엿스나 ●에 多數賣로 漸下하야 七錢々지 上하엿다가 又落되여 다시 十錢이 有하고 十一錢에 止
第三節 立、際하야 大阪이 安하니 中限不成에 先限은 二十二圓八錢에 寄하야 九錢을 高價로 六七八錢에서 小往來하다가 六錢에 止
第四節 中限不成에 先限은 大阪時勢는 如前不勢에 後를 接하고 當地人氣亦依然히 弱하야 〇七錢에 寄하야 八錢이 有하고는 一錢二錢式或上或下하다가 三錢을 最安價로 不勢裡에 止하다
第五節 中限不成에 先限은 二十一圓九十九錢에 寄하얏스나 軟軍의 利喰을 因하야 直線으로 七錢々지 上騰하야다가 다시 賣物에 눌니여 漸々下落하야 一錢이 有하고 二圓은 도다시 賣氣에 依然히 盛하게 止
第六節 中限은 二十一圓九十五錢에 始하야 二十圓에 止하고 先限은 二十二圓에 關門을 破한 二十一圓九十九錢에 寄하얏스나 賣物이 殺到하니 持續치 못하고 二十一圓八十七錢을 最安價로 反騰되여 九十錢이 有하고 八十九錢에 納會되니 今月의 時勢二十三圓의 差百十一丁을 示하얏더라

●當限受渡數 一月限受渡米總石數는 六千百石이오 受渡價格은 二十一圓八十錢인되 受渡各仲買店別은 左와 如하더라

渡方		受方	
[illegible]	三、〇〇〇石	[illegible]	五、六〇〇石
[illegible]	一、〇〇〇石	[illegible]	三〇〇石
[illegible]	九〇〇石	[illegible]	二〇〇石
[illegible]	五〇〇石		
[illegible]	四〇〇石		
[illegible]	三〇〇石		

仁川正米時勢
三十日仁川勸業所調查에 依한 正米時勢는 左와 如하더라

玄米	平澤三等合格 上	二二、四〇
	中	二〇、〇〇
	下	一九、八〇
	地搗	
同	黃海 在來種	六錢八〇
同	忠淸 神力種	六錢二厘
籾	白川物	一一、〇〇
大豆	龍山物	一一、八〇
	長湍物	一一、五〇
小麥	海州物	一一、五〇

日銀帳尻
一月二十七日現在

發行高	一、一五九、六七六
正貨準備	一、一五九、六七六
發行餘力	一二〇、〇〇〇
貸出高	一二、八三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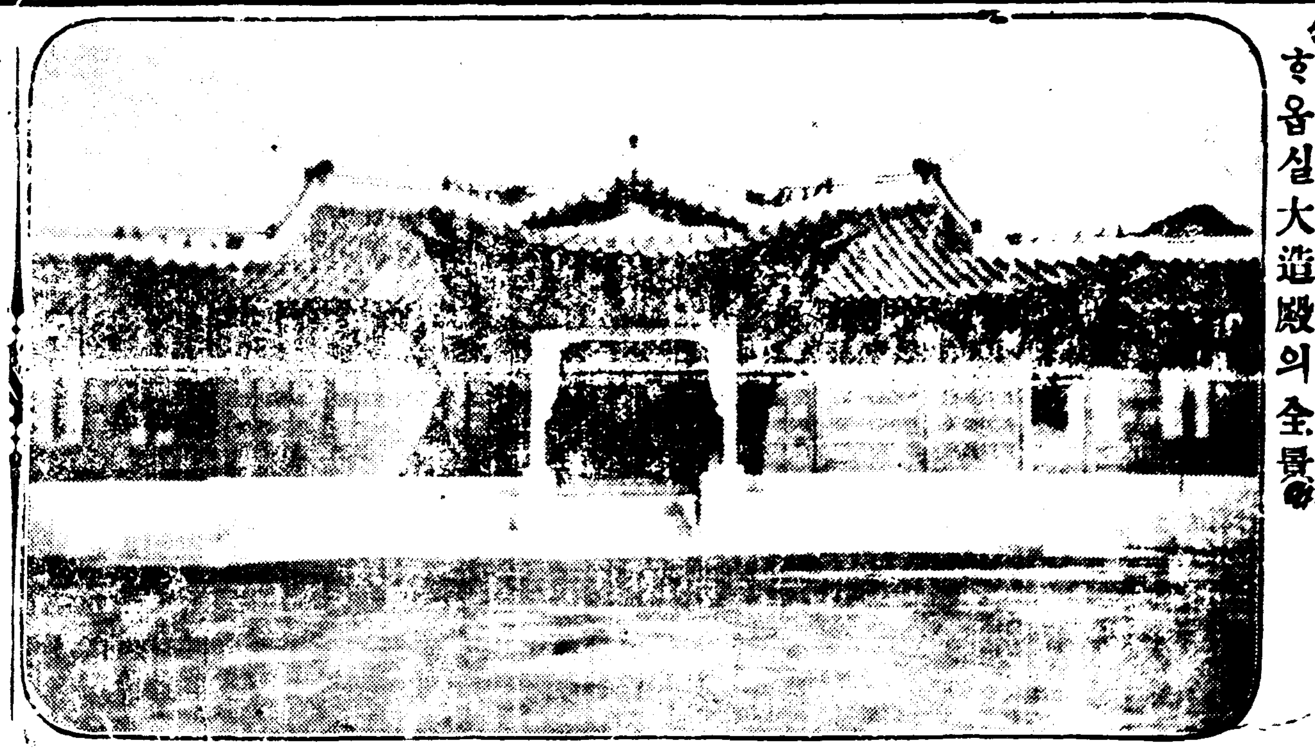
紙物
朝鮮紙

板版紙大角壯百枚	自百四十圓至百五十圓
中角壯百枚	自七十五圓至百圓
小別角壯百枚	自四十五圓至六十圓
東大壯百枚	自十五圓至十七圓
壯紙新廣大壯一塊	自三百二十圓至三百五十圓
映窓紙一塊	自二百圓至二百六十圓
厚紙一塊	自百圓至百三十圓
三貼紙一塊	自百圓至百六十圓
新廣紙一塊	自百圓至百二十圓
唐紙一塊	自百圓至百二十圓

洋紙 一斤
品名: 新聞紙、印刷紙、仙花紙、模造紙、牛皮紙、洋紙 (上中下同) [illegible]

米豆餘話
◆保合에 保合을 重하여 오든 時勢는 當限納會々지 別無大差이엿다 ◆그리고 今朝立會時에 軟軍等은 異口同聲으로 當限納會完了後인 今日도 그저 잇게니 하고 오조 意氣를 正히 하는 模樣이더니 따는 初付時勢보다 前日止보다 安하엿고 또 其後에도 節々이 下落이 되던 中末節에 當하여서는 二圓台難關도 저를 破하고도 오히려 安價二十一圓八十七錢々지 現하엿스니 나다는 軟軍에 意氣도 意氣여니와 豫測이 츠음 하든 것 △問題中에도 問題로 示하든 當限納會와 其他를 完了한 後인 今日에는 何如튼지 로 오는 四月限新甫는 大納會보다 百餘丁이나 高하게 初付되여가지고 變動을 牛하엿스나 今期는 特히 議會에 物價調節策과 帝國農會에 活動如何도 重大하거니와 以後는 次々出穀期도 盡하여가니 硬軟兩軍은 共히 實彈戰期가 不遠하여오는 데임으로 그다지 前番처럼 高付되지는 안일 것은 勿論이다 △此新甫初時勢에 對하여 市場에서 見聞한 것을 紹介하건듸 衆論이 不一致하기는 하나 共中을 만한 놈을 쏩고 적한다면 或二十錢高付하리라하는 說도 잇고 三十錢高付하리라더는 說도 有하니 豫言家가 아인 本場軍은 豫測키는 難하나 衆論을 平均하게 觀測컨듸 納會時勢보다 高하기는 勿論이나 大約三十錢以內에 高價로 發會할 듯하다는 說이 其中有力하겟더라 △帝國農會에서 朝鮮大農家에 通知가 有하여 朝鮮에서도 具體的으로 무슨 開催하리라고는 今月初부터 잇섯스나 總督府某當局者에 談에 風說에 不過하는 發表가 잇슨 消息이 아조 업더니 近日에 어느 信用할만한 소식에 依하면 발서 準備中 在力農家들이 裡에서 會合에서 무슨 를 열고 議論이 잇섯다 하니 朝鮮에서도 곳 되지나 가지는 안을 模樣이나 日本內地에 不買同盟이 아직 볼 것이 업는 지금도 總米에 聲援가 漸々高하던 萬一不買同盟이 實現되기만 하면 못지 말고 朝鮮米에 時勢가 高騰할 터인듸 무슨 理由로 空然히 그리는지 要領을 수 업서 △요사이 市場內에서는 사람마다 우리집이면 원일이야 원일이야 하는지가 數三日에 亘하야 다 그리한야 本場軍들이 어디 對하여 調查한 結果에 依하면 仁川市內에 有力한 實業家의 한이 米豆에 覇王인 潘福昌君에 消息이엿다 △올고 본이 匹는 數!! 來場出入을 안이하닉으로 一般이 그다지 潘君에 動靜을 알여고 함에 이엇다 이에 그 動靜을 紹介하건듸 身病으로 自宅에서 靜養中이라 하니 너모 라갑하게 역이시지도 마시오(場軍)

李王殿下께옵서明日부터御移居 하옵실大造殿의全景



軍資金募集及政治變革運動하던 假政府特派員

天津에서安昌浩로브터朝鮮獨立假政府를爲하야軍資金募集依賴를밧고京城에왓서

본적미샹현쥬소지나안동현금돌남도구(支那平甲縣埋朝面南道溝)십호의일리병규(李秉珪)(三一)는항상조선독립운동하기를목뎍하고잇다가 구년음력유월중 지나텬진(支那天津)에셔 조선독립운동하는것을탐지하고 텬진에 건너가셔 조선독립운동에진력하며 상히에잇는 조선가뎡부로동총판 안창호(安昌浩)와갓치 협의한후 안창호로브터 조선에 건너와셔 지나에잇는 조선가뎡부를위하야 조선독립군자금을 모집하라는 의뢰를밧아가지고 동년구월삼십일조선가뎡부원 뎡인찬(鄭仁贊)과밋

同假政府 內務部長李東寧 에게朝鮮獨立義捐金領收證及大韓獨立新報各五枚

식을밧으가졋다가 두년십일월삼십일에상히가뎡부 특파원이되야우독립의연금령슈증파밋한독립신보 휴대하고조선경성에건너와셔 부호한인민에게 조선독립군자금을모집하야상해가정부로 송부하기를 결심하고 안동현에건너와셔 경성부권농동오십칠번디(京城府勸農洞五十七番地)리철승(李哲承)(二二)파밋 본적쥬소미상한 조병창(二二)등 명파갓치 상히가뎡부에셔 힘쓰는일파밋 조션에건너와셔 부호한사람에게조셔독립군자금모집을협의한후 본년일월십유일에 경셩에드러와 조션독립군자금을모집하며 정치(政治)를 변혁(變革)하도록 운동하든일이 발각되야 경성디방법원검사국에셔 지나간이십팔일에 취조를마치고 동법원형사부공판에 붓쳣는지라 동형사부에셔는 본일로공판을 기뎡하얏다더라

龍川郡에서 搜索班과獨立團交戰

六穴砲三個와宣言書等을多數押收하얏다

지나간이십구일에평안북도뎨삼부(平安北道第三部)잇는 김부장(金部長)의령솔인슈식반은 룡쳔군읍동면봉곡동(龍川郡邑東面鳳谷里洞)에셔 삼명의 독립단원과격투한결과 우긔쐐사총을취포하고 모강식륙혈포一긔와二十六년식륙혈포一긔와 탄환七十긔와기타선언셔등을 압슈하얏다더라

西大門署設立 記念講話會

지나간 이십구일 오후일시브터 동오시까지 셔디문경찰셔에셔 셔원일동의 강화회(講和會)를기최하고 동셔쟝삼(森)씨와밋김경부와 말영경부보(末永警部補)씨씨의유력한강화가잇셧는디 강화회를기최한리유를드른주자번일월의십구일은곳셔디문경찰셔를설립한이라 금년일월이십구일이 일쥬년기렴일에상당함으로 동경찰셔에셔는 이번일쥬년기렴본에 동셔쟝의 건축하야장소를변게한후 관니의각유지신사와밋경셩에잇는유지신사셔지 청요하야일쥬년기렴을 셩대히거힝코쟈하얏더니사정에의하야 동청사를건축지못하고 그대로잇슴으로 예뎡과갓치못하고 다만셔원만회집하야 강화가잇셧다더라

假政府特派員의 公判開庭

昨日覆審法院에서 李源生外一名의第二審公判開庭

츙쳥남도셔산군고북면신뎡리츌싱(忠淸南道瑞山郡高北面新亭里出生)현쥬소경셩부관훈동十삼번디무역상(京城府寬勳洞十三番地貿易商)리원싱(四七)파밋츙쳥남도례산군오가면오촌리(李源生忠淸南道禮山郡五可面五村里)徐廷燮(三〇)동 량명은 공모한후조선이 일본에 합병된것을 항상마음에 평히싱각하다가 저작년삼월이후 조선각디에셔 조선독립운동쇼요사건이 발々함을보고 더욱이 분긔를발하야 조선독립되기를 희망하고 지나상히에잇는 조선가뎡부와 련락하며 조선독립운동자금 모집하기를목뎍하야 디뎡구년음력유월삼십일경 츙쳥남도당진군순셩면이셕리々희졍(忠淸南道唐津郡順成面二鉢石里李希性)의집에 가셔 자긔등은 지나상히에 조선가뎡부특파원으로 군자금을 모집하러 단이는사람이라하며 됴션사람이되야 조선독립운동에디한 의무를 안이홀수업슴으로 군자금오천원을 뎨공하라한사실이발각되야 공주디방법원형사부에셔 리원싱은증역삼기년 셔뎡셥은증역이년오월에 처한것을불복하고변호사쟝도(張燾)박츈셔(朴春瑞)량씨에게 의뢰하야 경성복심법원형사부에공소하얏슴으로 동법원형사부에셔는 작일오전십시부터 공판을 기뎡한바 방청셕에는리원싱과 밋셔뎡셥의 가족외 수십명이잇셧더라

光濟丸에 太極旗를揭揚하얏다고 人心이騷動히

지금인쳔츅항에뎡박즁인 총독부톄신국부광졔환(仁川築港碇泊總督府遞信局付光濟丸)에셔난 지난삼십일오후참붓터 각국긔호를놉히달엇난되 그즁티극긔난졔일크고도그즁々앙에다종일다려두엇섯난되 이에되하야 인쳔시니에셔 난별々이상한쇼문이 랑자하얏다더라 (인쳔지국)

西大門署의活動 對하야 某事件에

일경셩부니에 모중대사건이 발싱하야 쇼할경찰셔로부터그 범인체포에 노력중임은 루々 보도하얏거니와셔디문경찰셔에셔도 셔원일동이총출하야 여러날을 디합동한결과 일편에 이샹명의유력자를 검거하얏는디 그사실은 일절비밀에 붓침으로 보도의자유를 엇지못하겟스며 임의검거된자의외에도 다수한범죄자가 잇는듯하야 동셔에셔는 계속하야 활동즁이라더라

道巡査의 瀆職事件

今日地方法院에서公判開庭

본적경긔도고양군한지면 수철리오십오번디(京畿道高陽郡漢芝面水鐵里五十五番地) 현쥬소동도양쥬군구리면망우리 조선총독부도쇼사(楊州郡九里面忘憂里朝鮮總督府道巡査)최우진(崔于鎭)(二四)본적경셩부계동일빅번디(京城府桂洞一百番地)현쥬소경긔도양쥬군회쳔면덕뎡리조선총독부도쇼사(京畿道楊州郡檜泉面德亭里朝鮮總督府道巡査)디윤쥰(二九)본적파밋쥬소동도동군동면봉양리이빅십오번디(鳳陽里二百十五番地)최긔현(一七)등삼명의 독직(瀆職)파밋도박사건이발각되야 금일오전십시브터 경성디방법원형사부에셔공판을 개뎡케되는바 니용은좌와갓더라

△최우진 은수년전브터 조선총독부순사로잇셔경긔도양쥬군뎐뎡리 양쥬경찰셔뎐뎡리경찰관쥬재소에 근무하던즁 쳥구년삼월이십칠일(음력 일월일) 경 동도동군동면봉양리를 힝쇼하다가 동리에셔 인민이모혀 도박하는것을탐지하고 동리일빅스십유번디 최쥬봉(崔消峯)외수명을 차자가셔 우도박장에셔 자긔에게 금전을지불하면 무사하고 만약 그러치안하면 경찰셔에 보고를하야 징역을식히겟다고공갈을한후 금전을 수취하얏고 △지뎡윤도 역시 그당시에조선총독부 도순사로잇셔 동경찰관쥬재소에 근무하던즁 이상파갓치 협박하야 최우진파갓치 금삼십원을수취한후 동년음월십구일에 인민에게 금오십원을 수취하얏고 최긔범은 도박에상습자로 우최우진파밋 지뎡윤의 회사를 쥬션하야주엇다더라

大同團事件에關하야 金氏婦人의血書

覆審法院判事에게

작년가을 리강공뎐하를옹립하려든대동단(大同團)전협(全協)외 삼십사명에디한 조선독립운동사건에디하야 그사실은본지에 두々히긔지하얏거니와 피고등은 그사건에디하야 원판결을 불복하고경성복심법원에 공소한일은임의드일노바이라 그런디그피고즁관계가잇는 경셩부계동이십구번디 장현식(張鉉軾)의실모 김소사는 디동단원공쇼사건에디하야 이십구일복심법원판사에게 장황한혈셔로긔지하야 제출한바 그니용인즉 즁왕디무단에관한일반을 로혈홈이오 다른의미는업는디그혈셔를밧은 복심법원에셔는지금그사실을자셰히조사즁이라더라

雜誌開闢 裁判期日確定

본보에 여러번게지된 잡지기벽지판사건은 오직도 독자여러분의귀에 남아잇슬줄알거니와 그지관괴일도 회기정이되여 오는二월삼일파 스일오전아홉시에 시작이된다는디 그사쇼는 경성디방지판쇼 형사법뎡이라하며 다섯변호사의열변으로 우리출판게를위하야자못홍치가 쥬의를홀지관이라하며 각게급을물론하고 출판업자나잡지경영자는 물론이오 기타독서계에 모던인사들도 진々한취미로 방청홈이 만켓다더라

夜半의 大爆音

아마비일조선인의소위인듯

지난달이십이일밤 구시쯤되야 전라남도벌교니부호 박사윤(朴士允)의집디문간 온돌노붓터 폭발이난소리가 팡々하이러남으로 그부근사람과쇼할경찰관서로브터 관헌이다수출장하야 검사한바 그집부근에난다수한 쇠(鐵)조각이 산々히허여져 한번볼에난 흉사한 폭탄이 포렬됨파갓흔디 그형편을 살펴보면 오마 비일한조선사람으로 박사윤의집파무신합차랑하협이잇난자의쇼위인듯하다고하난디 관헌은지금범인수사에노력즁이라더라

黑西哥公使館에 大賭博 二十九名檢擧

일본경시텽에셔는 디뎡구년십월경브터 디관시니 각외국공사관안에 도박을크게 기설한다는 쇼문이잇슴으로 이리각방면을수식즁이나 용이히발견치못함으로 도박자등은 그것을긔화로알고 더욱발호하는형적이잇슴으로 당국자는 아예디하야 외무성파타합하고 이십칠일오후시경 전々(前田)지등(齋藤)의량경부가 형사이십여명을다솔하고 국쳥영전청에잇는 묵셔가공사관에츌장하야 그령사관안에셔 도박하는 디관부하삼곡경 전파삼범 환산룡길(丸山雄吉)(三三)국쳥룩번청 쳥수총일(淸水摠一)적판쳥이번디쳔명금티랑(川名金太郎)외이십칠명을 검거하야지금취조즁이라더라(동경뎐보)

時代의罪이냐! 社會의罪이냐! 苑洞「짜케트」의哀史(九)

영화를꿈꾸든봉오리꼿은 애흡다무춤히을크러지다

外多生

그리하야 그는맛참니뉘웃치는비회가 원통하고설은싱각에가삼이타오르며 목을놋코통곡을하야가며 박셕규의도라오기를기두리며 무셔운시위운동(示威運動)을하게되얏다 오리동안 우름파번민에빠지엇든 그는졍신에는 얼마간이상이잇섯든지 그는별안간박셕규를보고 거의발작적(發作的)으로 상우혜노엇든 쥬머니칼을들고 「이놈으ㅣ너는나를속히고 나의뎡조를더럽히엿구나ㅣ 너는나의원슈일다ㅣ 나는이제갈곳이업는몸이되고말엇다ㅣ 도모지세상이귀치안코 무졍하기만하니 차랄히이단도로써 너질너원통호이나풀고 나도또한목숨을끈어 이고의세상(苦의世上)을 잇는것이상칙이다ㅣ」하며 밋친사롬모양으로 날뛰다가 마참니 쥬인집식구와기다려거사람(동경에셔온풍설에는 쇼사석지왓셧다흐다)이달녀드러 여말니엇스나 마참니밋을수업는부랑자에게 오리엇다가는 다시 무셔운최후(最後)를면키어려운줄로세다라 옴게된그는 그날밤에 박셕규가 사셔준품즁에셔 시계와반지! 동갑나가는귀즁품만 쏘ㄱ헤여가지고 즉시 그잇흔날아츰 급힝차로경셩을 향하야떠나 박셕규 두려운품을버셔나게되얏다 그러나슬푸든 그는입의처녀의자랑어리가되는뎡조는역망이되고 사람의보비인명예는따에써러젓스며 이케는장차향하야갈곳조차업스니 오ㅣ죄이나곳으로향하랴느냐ㅣ그이체이쇠잇힌 어린동포야ㅣ비는동경을써난지삼일만에 경셩에도라와 눈에익은남디문역에 무사히ᄂ리니무ㄱ々히서々잇는 져남디문과 말업시빗가위잇는문등(門燈)의에연한불빗은 얼마나 그의마음을압프게하얏스리요 눈에보히는것 귀에들니는것이모다 쳥들고 낫니는예ㅅ것이엇만은 누구나한사람ㅣ 다만한사롬도 그를반겨맛는이와 그의갈곳을념려하는이는업섯다 그러나 밤은점々깁허가는데 더욱히 여러날려한에 피곤한그는 여한한싱각에 쥬려잇혀부모업시 「나를잡으유ㅣ」하는쪽으로 즉시원동자귀의집으로드러갓든 결박을과만하고어러서은 체상에만귀의사외라그를 보지안을때에

ᄂ죽이ᄂ니 살니ᄂ니 하난그시어머니와 형님으로도 울면서달녀드는그를차마 예치지는못하얏셧다 그러나그가집에도라온지 혼달이좀넘어셔는다시무섭고 두려운사건이발견되얏나니 그는갓득이나허리가굴그니몸이부되엿니다야가면셔 겨울에도 홋고장이만입고지니이든 그의비가나날이불너감이엇다 이외를본그의어머니는 얼마나놀니엇스며얼마나 가삼이더옥얼호엇스리요 그제야 비로쇼박셕규에게결코뎡조를터렴한일이업다고는그의말이 거짓말임을씨닷고 더욱히분한싱각파ㅣ십한마음이 드러셔「이년아ㅣ방질안이하얏다난년이 …」

高宗太皇帝의 御三年祭 望哭式

음력으로이월이십일은 곳고종리황뎨의어삼쥬년어대상일에히당홈으로 동일오전십시 목포향 유지수빅명은 노교동뎡광삼사목포교쇼에집합하야 정숙한망곡식을 거힝하얏다더라(목포지국)

逢阪町의 大火

損害數十萬圓 重輕傷者多數

지나간이십팔일오후칠시경 련불야셩봉판뎡(不夜城逢阪町)에셔 큰불이나든동시에북풍이부러셔 가옥칠호는전쇼되고 사호는반쇼되고 동팔시삼십분경에진화가되얏는디 근린드문큰불인바 원인은칠시경 셔공원뎡쥬졍룡(西公園町酒井龍)의과자상뎜부근에셔불이시작하야 화광이충텬하며검은연긔가 나셔오르는것을보고 그부근사람들이 크게놀나 동뎡경찰관파밋 그부근인민이 다수히모와 진화를식히려하나 북풍이 심하게부러셔이집져집에불이 뚜여단임으로 착수홀사이가업시되얏든즁급히하야와던디 련각소방디근본경부지휘하관디유십명의진력이잇셧스나 효력이업고또그근쳐에수도가업슴으로 얼마동안후에 약십여뎡보를격한 셔공원취락원에잇난슈도선을 디여소화하도록 쥰비하기에십오분이상이 걸녀셔 불긔운은졈々딩렬하게 조션사름창기옥안쥬관(娼妓屋安州館)을쇼화하고 다시일본사람봉츈루(逢春樓)기외슈쳐에뛰여김으로 봉판뎡쳥루일디가도로에나가쇼동을하며 청루에잇난녀자와남녀쇼가 눈물을흘니며 싱명을위하야피란하기급々진력하난것은 참으목불인견이라 중경부상자가 다수에달하얏고 손히난수십만원이넘는다더라

新民報社

오종셥(吳宗燮)씨외 모々유지로붓터발긔한 신민사는작년붓터 쥰비에착수하야왓스나 그간 여러가지관계로인하야 우금와지 실형홈에 이르지못하얏는디 요사이젼하는바에의하면 신민사는 경셩에셔발힝하는모시에 신문사와사공동々라는 경영이잇스나 오즉신지화평쳐못하얏다는말이 잇다더라

野犬撲殺公告

사리원경찰셔에셔는 일월이십구일부터 삼일간관니야견박살을힝할뜻으로 공고를발하얏더라(사리원)

英國王女가俳優가되엿다

영국귀족「루도란또」뎐공의왕녀「다이아나」는영국에셔뎨일가는미인이라하고、도바 일작년오월경 「마나춘」의가후무슨사정이잇셧던지 영국에셔뎨일흥힝하는 극장에셔 녀배우의계약을체결하얏다더라

小泉教授問題로 慶應大學一大騷動을起함

경응디학에셔는 동교々수 소쳔(小泉)씨의 무면문뎨가잇슨후로붓터 교수와학생사이에큰 분규가 니러낫난디 쇼쳔씨는 그사건으로인하야 분홍마음이 익지못하야 죽엇다는쇼문외지 당국에셔는그 소동이 날로험악하얏더라

黑死病 齊々哈爾賓으로移去乎

지난달삼십일々 조선군의부에 수집된 여러가지보고를종합하면

米豆仲買廢業

인천미두취인쇼중미인으로여러 히 공헌하던 중미인 장석우(張錫祐)씨는 요사 자긔집사정에의하야 지난이십칠일부터취인쇼중미업은폐지하얏는디취인쇼조합(取組合)에디하야는 결요한다더라 (인쳔지국)

一、북만쥬의 흑사병은 신년쌔기로뉴「스보」로브터 도(?) 려가다「빈」으로 옴기여가는 뒤셔지사이에 발병총수는 이십여명에달하고 또지금에 모르나만면에는 모양이라 오십명에이르고 그곳에모착이야 쇼쳔군의청시야면박역의 일관되는오는거리가만허잇셔 방역에노력중이며

二、할이빈에셔는 파반사망자의동거자로 격리하야잇든 두명은 이십칠일에 이르러 발병되야 당일로홍ㅣ이른지라 오련며 씨의 검진에결과 병균을 부두구에 이명에셔발견하야 회부의결과 흑사병이 오임을확실히알앗스며

三、조국치에난 이십칠일오후 일시브터 할이빈시격소에 희회를기하고 오리와갓치결뎡하얏더라

가 환자수용가옥을청 고환자를 격리슈용할것

나 환자수용반을편셩하야 지정 자 모다 격리슈용할것

다 의사 각이디를비치할것

라 방역시취위원회를 병원안에설치할것

三、최근동지션에 흑사병이비에 제한된 지나인노동자에게난 지나지못하게하고 리차오륙십명을 게홀것

自稱假政府員

京城各所를徘徊하는 三名逮捕

지난이십일오후구시 룡산원뎡이뎡목 미곡상홍쇼익(洪淳益)의집에 두명의조선사름이 드러가 쥬인에게향하야 우리는 비밀히의논홀일이잇다하고 쥬인을 고시뎡부근으로나아와말하디우리등은 상히가뎡부로브터파견된 군자금모집원이라하며 군자금을제공하라고 협박하얏스나 주인은 돈이업다고거졀함으로 그사름들은 명원오시사지홀하야 길야뎡일뎡목으로 가쟈오되

△만약관헌 에게밀고하면 너의가족일동을 모다죽인다고 위협하얏슴으로 홍순익은 돈의되 여오는길에 경셩부근으로나아왓슴을 룡산경찰셔에셔밀고를 호 비상션을베풀고 수협력하야 노력한결과 드듸여쳬포하야 잇고 또이십사일오후팔시々 청부공평동 김소비(金銀瑞)집에 도 일명의조션사름이 자긔는상히가뎡부특파원인 바 군자금을제공하라고칼로써 협박하고 수체곰고로브터현사수여원을강탈도쥬하야고 타고도이상파갓치 여러곳에드러가금전을탈취한사건에디하야 각형사는붙는

△비번순사 범인을엄중히쫏지 힝々히비번순사가 범인은 신출귀몰하게교묘히비상션을버셔나셔 각쳐에피히가쳑지안이하얏슴으로 경셩니의인심이불안하얏는디 과연이십구일오후팔시십분 거동이수상한일명의조션사람이 황금뎡일뎡목을통힝함을 밀힝즁의본청형사가발견하고 파출소로갓치와셔취조한바 양복속에셔륙혈포를발견하야 더욱엄즁히취톄한결과 공범자이명을톄포하얏다더라

金氏의貧民救濟

황히도봉산군 사리원면요강리거쥬하는김러슈(金麟洙)씨는 작년도흉년을당하야 곤난한빈민을구졔하야 금삼십여원을 쇼미조(粟)이십여석파 빈민곤궁한이에게 분급하얏는디 이는 일반의 츙송이자々하다더라

元山에 中學校新設

원산에일본인중학교를설립한다 함은 임의다아는바와갓치 작년도로화실히설립된바 긔학일자는 오죽자세히알수업스나 오는사월십일경쓤기학을할뜻이라고 입학시험일은 三월二十三 四五량일이되겟고 임학년수는 일학년삼도만ㅣ약빅명위한하고 밧을터인데 일본인에게 밧고 일본인이 교에입학홀자격은 소학교졸업하야 난십상소학교육년을 슈업한자요 조선인은 조선인이상업학교에 셔二년이상을공부한자라야 입학할듯하다고하며 학교는지금 시나양지동에 신건축하는바 분간은 원산우편국자리에셔 기학홀토록작뎡이고 입학원 셔는 지금부쳥니에셔 밧는다 더라(원산지국)

悲慘한 行旅死亡

昨年中公表가 二千百六十名

셰상에 비참혼일이 만치만은 병이들어도 치료의방법이업시 산야와밋길거리에잇셔도 입고 먹을것업는 그신세로셔 의복이업셔가마니조각을 동셩을표하야쥬난사름이업고 이러한 불상한 사람의 비참흔은 말할수업시 작년중 조선총독부관보에게재된행려ᄉ망자가 이천일빅륙십명인바 그중 일본사름남자가 이십삼명 녀자가십이명 합계삼십오명 조션사름남자가 일천칠빅사십오명 녀자가삼빅칠十칠명 합계이천일빅이十삼명 지나사름남자가삼명 녀자는 무하고 합계삼명 이상합계남자가일천칠빅八十九十구명 녀자가삼빅빗팔十구명 견부총합계이천일빅육十명 은 곳헛려사망한사름이라 빈명중에는자가팔十이명녀자가 팔명의활합인바남자와녀자의 빈명인바 남자와 녀자가 의인구중에셔 팔쳔오빅명 조선인일쳔칠빅이十팔명 관의인구중에셔 팔쳔오빅명 라고 조선인일천칠빅二十팔 려스망니잇슴활합이라 우취 를 각도별(道別)로말하면 경 성부가 그중다수에달하고 조 선수부가 되는지라 각도로말 하면 경긔도 황히도 경상북 도의순차가되고 함성북도의일 본사름이다수하야 지나사람 이다수하야 정졍에는 지나사람 그다음에 경졍에는 지나사람 말하면 남자십셰브터二十셰가수 인 십셰브터三十셰가지가 반수 이되얏고 기외에는 삼십셰이 상오십셰지지잇셔 오십셰의금 년을가지고 기외에 삼십셰이 으빅구십명이라더라

무궁훈장리

를흠씌그릇치고 한숨활합인바 …

吳賢明女史

강화읍니신문리 오현명(吳賢明)녀사는 본릐 경성리화학당을졸업하고 인천사름으로 동경에유학하야 신학과음악을 비운후 다시작년일월브터강화에건너와 당디녀교에셔교편(敎鞭)을잡으며 조선녀자교육의불완전홈을유감으로오동쇼간복집습으로교수한결과 일반으로브터 녀자교육의결핍을 창간하며 기시야효천녀자의교육이 홍합홈이 만타하며 이번에 강화교회니에 녀자교육회를조직하고 일반의찬양이 자々하다더라(강화)

金正洪氏의美擧

황히도지녕군북률면 진초리이왕군참사김뎡홍(金正洪)씨는 여러번자선사업에 힘을다하야 동면기타읍교수함으로 동녀사의칭송이자々하다고 강화린인의청셜이잇더라(강화)

투셔란

셔소문에잇단공장에셔 쥬ᄂ 일에는 보통이차일피쌍이 면셔도 주는 오른 우라 쥬ᄂ 일이업는 모양이닛니 일로 쥬고 계집 두어 원에 주라오

東西偉人傳

本書는古今人物을蒐集한比先히第一卷으로二人을選하니庚信은三韓을統一하고克林威爾은幷海權을擴張하고、결림버쓰는米洲를發見하얏스니以上諸公은世界上二偉人이라然하나克林은三島의亂을定하고庚信의統合을追刻하과如하며自此以後英의強大와美의交通이列國의競爭을激成하다가今番大戰亂이되야遂히民族主義等新思想을勃興하얏스니此可謂世界改造로다烏呼라此時를當하야엇지庚信克林(결림버쓰)其人이更히不出하리라謂하리오

歐米新人物 (定價金六十錢) 郵稅十錢

演說及式辭法 (定價金六十錢) 附錄 普通規則

時事講演錄一二集 定價各六十錢 郵稅十錢

發賣所
京城府樂園洞一三一番地 京城振替口座八七二番 普及書館
京城府蓮池洞一丁目八八番地 京城振替口座二〇三三番 博文書館
京城府大門通一丁目拾七番地 京城振替口座七二一二番 滙東書館
京城府鐘路通二丁目八六番地 京城振替口座四九一番 東洋書院

京城仁寺洞二六(前漢城病院跡)

入院 自宅 診療

尹治衡 外科醫院

附微科特別診療

入院室 溫突 洋式 各隨其便(一二三等)

漢城洋靴店 京城鐘路二丁目

信用과名譽集中한 洋靴及經濟靴

쇼셜 發展(五六)

夢空生

五六、그사람을다닷다 낫슴니가

리영이가 자긔의 모든것을 설파ᄒᆞ랴고ᄒᆞᄂᆞᆫ것은 일작자긔가 몸이 남의게인격ᄭᆞ지 파ᄆᆡ먹고셔 이러케침체ᄒᆞ여 이제ᄂᆞᆫ 이오경으로부터 깁흔동졍을밧을 가치가업다ᄂᆞᆫ것을 으르켜주랴고 싱각한것이요 오경이가들을 필요가업다고ᄒᆞᄂᆞᆫ것은 엇더ᄒᆞᆫ게닝락을ᄒᆞ엿더라도 리영의 자미ᄂᆡ음에ᄂᆞᆫ 아모리ᄒᆞ여 변할리가업스니ᄭᆞ 시삼스럽게또 리영의ᄂᆡ야기를ᄎᆞ고 그사람의게 ᄯᅩ그러움이 싱기ᄒᆞ지안이ᄒᆞ것다ᄂᆞᆫ 마음이다

오경은

「엇더ᄒᆞᆫ일이잇더라도 당신은 이젼ᄯᅢ갓치 희망이만흔 마음을가지고 지금부터 ᄯᅥ돌면 겟슴 발바주세요 나ᄂᆞᆫ수업ᄒᆞ고잇든 오년동안에 어느날이고 당신의다른일을 싱각지요 이ᄒᆞᆫ날이 업섯슴니다 ᄒᆞᆫ편에 가기만ᄒᆞ면 지금은리영이가반 나시 홀몸이된사람이 되여잇겟지 그이의요ᄒᆞ노릇이엿나 ᄭᆡ낫도지 은근ᄒᆞ세상사람의게 ᄒᆞᆫ흠을밧읍니 더런처라고ᄒᆞᄂᆞᆫ 흠 사람의입에서 욋삿지 안이할줄알고 조금이라도 당신과갓치요니ᄒᆞ면 안이되겟다ᄂᆞᆫ마음으로 오직당신의일만싱각을ᄒᆞ고잇셧지요 그것이드히에와서보죠리정이일홈도오ᄂᆞᆫ사람이업서지오 실망이라고ᄒᆞᄂᆞᆫ것은업서요 나ᄂᆞᆫ 당신이실피ᄒᆞ얏다ᄒᆞᄂᆞᆫ그것을 오모럿케도싱각지안이히요 나ᄂᆞᆫ곳나 의마음을 곳쳐지요 당신이지금여하히 락망을ᄒᆞ고 실피을ᄒᆞ엿더리도 이친일은이렴일이요 지금에은지금일이닛가요 지금ᄭᆞ지의실막을ᄒᆞ얏다고 이후에도 실망을한다ᄂᆞᆫ리유ᄂᆞᆫ 아모것도업지요 시방보더라도 젼만ᄉᆡ시로 훌륭ᄒᆞᆫ리영이가될수잇ᄂᆞᆫ것 올시다」

오경의이말이 리영의마음어사모치지가안이할슈가업다 리영은고기를푹숙이고 두주먹을 꼭쥐면서 오직

『분ᄒᆞ다 분ᄒᆞ다』라고ᄒᆞᄂᆞᆫ말뿐이다

오경은다시

『그러닛가 나ᄂᆞᆫ처음으로 이도회디에왓슬ᄯᅢ에 동경면 가라고ᄒᆞᄂᆞᆫ 한촌가에 초ᄃᆡ를밧오 교제장리(交際場裏)에 여러사름과 인사ᄒᆞᆯᄯᅢ에 ᄌᆔ인ᄋᆡ작이 오늘져녁에는 드련상의게쇼기ᄒᆞ야주것다고ᄒᆞ기에 그ᄃᆡ편지라ᄒᆞᄂᆞᆫ이가 반다시당신을가라쳐ᄒᆞᄂᆞᆫ말인줄싱각ᄒᆞ야 내몸이 당신압헤나가면 오ᄅᆞᆫ동안비오ᄂᆞᆫ것도 으모호헴만시 이몸이얼마나못히보일ᄂᆞᆫ지 겁도나고 붓그럽기도야 됫수잇스면 너몸을 숨기라ᄒᆞᄂᆞᆫ지올두고 너마음에서 나오ᄂᆞᆫ것이ᄒᆞ엿슴니다 그것이모도 당신을시다 나ᄂᆞᆫ디런져다고ᄒᆞ면리영씨밧게ᄂᆞᆫ업ᄂᆞᆫ줄알셧만안이라 그칭명이진동ᄒᆞᄂᆞᆫ줄알아셔 니격이업ᄂᆞᆫ줄알아슴니다 그런데 한촌남작은 그사름의 그런바다그림을보면 ᄯᅳᆨ바다가에와ᄂᆞᆫ것갓흔마음이든다ᄒᆞ기에여려가지 말을모와보더라도 이편지라고ᄒᆞᄂᆞᆫ사람이ᄯᅩ 그당신인줄알오 한편으로ᄂᆞᆫ 반갑기도ᄒᆞ고 ᄒᆞᆫ편으로ᄂᆞᆫ 붓그럽기도ᄒᆞ여 엇지할줄을 몰낫지요」

이말을들은 리영이ᄂᆞᆫ 그사름이 누구인지 몰을리가만무ᄒᆞᆫ것갓치 리영은 고기를돌며니졍이

「그사람을 만나보앗슴니가」그리셔 셔르거릴ᄒᆞ여 도디여 리영의 닌역ᄒᆞ여진 리영을오경이가알지못ᄒᆞ엿ᄂᆞᆫ디 지금셔로ᄒᆞᄂᆞᆫ말이차々그리려도 알듯ᄒᆞ기도ᄒᆞᄂᆞᆫ나중간에ᄯᅩ 무슨ᄯᅥᄂᆞ말이날ᄂᆞᆫ지 알슈가업다 강강님의계와 권ᄒᆞᆫ용의 장당한일이만일 리영그리ᄒᆞᆷ을알게되면 디에 도라갈것으로ᄂᆞᆫ이다 그러치만은 암으도 알지노못ᄒᆞ겟지 강남은ᄋᆡ제 피약은ᄒᆞ나마 운슈가조흔 사ᄅᆞᆷ이니가 리일은 ᄯᅩ무슨문데에 무슨말이 나올ᄂᆞᆫ지 한번더보아봅시다

…(五七、이시ᄃᆡ가모두살면)!

玄堂劇談

玄堂劇談이라고ᄒᆞᄂᆞᆫ것은 玄堂이 演劇에對ᄒᆞᆫ 談話이니 新聞紙上의 記事로셔ᄂᆞᆫ 그範圍가勿論狹少ᄒᆞᆫ것갓기도ᄒᆞ고 ᄯᅩ우리 朝鮮과갓치 一般이演劇에對ᄒᆞᆫ 理解가업ᄂᆞᆫ 社會에셔ᄂᆞᆫ 이글보기를 실타ᄒᆞᄂᆞᆫ이도 잇슬ᄃᆞᆺ만흘것갓다 그러나演劇이 五大美術의 綜合藝術인 以上에ᄂᆞᆫ 이題目下에셔 文學 繪畫 音樂 彫刻 建築等 모든 藝術에關ᄒᆞᆫ 說文을 記載ᄒᆞᆯ權利가 잇ᄂᆞᆫ줄안다 이제玄哲은 그專門인 劇의題目下에셔 여러가지 姊妹藝術에 關ᄒᆞᆫ學說 隨筆 批評 紹介 感想을或은 飜譯도ᄒᆞ고 創作도ᄒᆞ야 우리 朝鮮日報 紙面의一段을 빌어 主義主張을 讀者諸位 의게展開코자ᄒᆞ노니 萬一에 ᄒᆞᆫ사람이라도 이글을因ᄒᆞ야 藝術에對한理解力을 엇는다ᄒᆞ면 이곳나의 크게 바라ᄂᆞᆫ바이다。몃으로한마듸 ᄒᆞᆯ것은新聞紙 記事로셔 時間上推敲ᄒᆞᆯ 겨를이 업슴은자못 遺憾이나 이는後日閑暇를어더 改筆訂正 ᄒᆞ기를기ᄃᆞ리ᄂᆞᆫ것이다

演劇과 敎化

第一은希臘이라ᄂᆞᆫ나라이 아모리文明國이엿슬지라도 當時에ᄂᆞᆫ比較的原始時代임으로 그ᄯᅢ의希臘人의心理ᄂᆞᆫ比較的單純ᄒᆞ기도ᄒᆞ고 ᄯᅩ質樸ᄒᆞ여셔 劇을보ᄂᆞᆫ데도 容易히感動되ᄂᆞᆫ것이 한理由인줄싱각ᄒᆞᆫ다。第二ᄂᆞᆫ其劇의組成되ᄂᆞᆫ談話의主體가作者의空想이 안이고 希臘의神代부터傳ᄒᆞ여오던傳說인故로 그國民이가장尊重이역이ᄂᆞᆫ一種宗敎的威力을가진 神話로만든劇임으로 그ᄯᅢ사람의 마음을깁히感動식힌原因이엿고。第三으로ᄂᆞᆫ 깁히國民全體의心裡에져진 一種國民的信仰 倫理的觀念이라고ᄒᆞᄂᆞᆫ것이잇셔々 宿命이라고ᄒᆞᄂᆞᆫ것은 避치못한다던가 因果應報라ᄂᆞᆫ것은 可恐의것이라ᄂᆞᆫ一種의國民的道念이 劇中에包含ᄒᆞ여잇ᄂᆞᆫᄭᆞ닭이다。다시말ᄒᆞ면劇中에實在ᄒᆞᆫ道念은作者個人의道念이안이고 國民一般의道念即所謂國民的倫理觀念이 김피사람의마음을 動ᄒᆞ게ᄒᆞᆫ理由요、第四ᄂᆞᆫ希臘의劇이勿論一種의娛樂이나 그反面으로ᄂᆞᆫ宗敎上의一儀式、國家의一典例로셔上演ᄒᆞ엿슴으로 決코遊戲一方이안이라고ᄒᆞᄂᆞᆫ것이 ᄯᅩᄒᆞᆫ사람의感化力을 만이준外닭이요 第五ᄂᆞᆫ그作品이普通의作品이안이고 古今有名의傑作임으로 人心을感動식혓다ᄂᆞᆫ것도한理由이며、第六으로ᄂᆞᆫ 希臘劇이音樂劇이니樂을奏ᄒᆞ며歌를唱ᄒᆞ고 舞蹈를ᄒᆞᄂᆞᆫ것이 今日의『오페라』와가치一種特別의綜合的藝術임으로사람을醉케ᄒᆞᄂᆞᆫ劇임은一般의感銘이깁니고ᄒᆞᄂᆞᆫ것이요第七은劇場의規模가擴大ᄒᆞ여 그것으로ᄒᆞ 觀覽者의 마음을동나게ᄒᆞ엿고 ᄯᅩ그런만안이라三千人以上이能히한곳에集合ᄒᆞ여볼수가엿ᄂᆞᆫ演劇이라ᄂᆞᆫ것으로理由이니 近者에 舞臺上에一千人의俳優가活動을ᄒᆞ고八千人乃至一萬人의民衆이一時集合ᄒᆞ여볼수잇ᄂᆞᆫ劇場이歐美에出現되엿다고ᄒᆞ지만은 이러케큰場所에셔 群衆이集合ᄒᆞ 自然其中에 所謂群集의力이라고ᄒᆞᄂᆞᆫ것이感化된々닭이다。이것저것모도合ᄒᆞ여古代希臘에셔ᄂᆞᆫ劇으로ᄡᅥᄂᆞᆫ有効ᄒᆞᆫ敎化機關을만든것이分明ᄒᆞᆫ것갓다

이러케感化力이만은 希臘劇도 『쇼크라테스』時代에와셔ᄂᆞᆫ 漸々面目을곳쳣다 純娛樂機關으로墮落ᄒᆞ지ᄂᆞᆫ안이ᄒᆞ엿슬지라도 宗敎的이라고ᄒᆞᄂᆞᆫ感化力은現著ᄒᆞ게薄弱ᄒᆞ여졋ᄉᆞ그리고ᄒᆞ참떠러羅馬時代에와셔ᄂᆞᆫ발셔劇이리고ᄒᆞᄂᆞᆫ것이娛樂機關이되고마랏다 거기ᄯᅥ年代를지나歐羅巴中古時代에와셔ᄂᆞᆫ 希臘傳來의劇은一旦衰滅ᄒᆞ여지고 그代身基督敎의僧侶의 工夫로된幼稚ᄒᆞᆫ 粗疎ᄒᆞᆫ 宗敎劇이 流行ᄒᆞ엿스니 이ᄂᆞᆫ無學의民衆 게宗敎上敎義를가르키자ᄂᆞᆫ 方便이다 娛樂機關이 안이고 全혀一種의敎化機關으로始作되엿슴으로 그러나漸々世度가進步됨을따라 僧侶의 손에셔버서ᄂᆞᆫ劇은專門俳優手中으로 드러와서 ᄯᅩ純全ᄒᆞᆫ娛樂機關으로 化ᄒᆞ고마랏다 그것이ᄯᅩ時代嗜好에ᄯᅡ름여시發達ᄒᆞ여『쉭스피아』時代一劇에이르러스니『쉭스피아』의自己도劇은娛樂을爲ᄒᆞ기ᄯᅢ문이라고 ᄒᆞ기ᄂᆞᆫᄒᆞ엿스나亦是 『쉭스피아』의劇에도 勸善懲惡의意味를 包含ᄒᆞᆫ자최는업지 안이ᄒᆞ엿다 다시말ᄒᆞ면여러가지意味에셔 敎化의効能이업지 안이ᄒᆞ엿다

朝鮮의佛敎가擴張되지못하는最大原因(二)

在東京 金湖生

새ᅳ마이이처럼所重ᄒᆞ고훌륭ᄒᆞᆫ것이어는사름이엇지이를輕率히보고汎然히對ᄒᆞ리오이졔거룩ᄒᆞᆫ신부처님의개否출ᄒᆞᆫ마암파석몃ᄒᆞᆫ뜻으로懇切히비옵나니罪만흔우리를져어보시고感應ᄒᆞ시사모든苦痛을우리에게주실지라도오즉文明ᄒᆞ고잘사라볼根本點이되는신-ᄆ의靈性을生ᄒᆞ 주리고사골는二千萬白衣同胞의頭腦에깁히너어주시며ᄯᅥ욱ᄡᅵ지못ᄒᆞ야苦痛밧는우리山中老和尙님네와부처님의일을爲ᄒᆞ야千苦萬勞中에셔時日로間斷업시進行ᄒᆞᄂᆞᆫ우리靑年의腦에ᄯᅥ々ᄒᆞ숨기여주소셔ᅳ부처님이시여ᅳ부처님이시여ᅳ

七、團結心이無ᄒᆞᆷ 우리朝鮮人더욱僧侶는이團結心에對ᄒᆞ야크게注意ᄒᆞ야되것다世上에ᄂᆞᆫ일을勿論ᄒᆞ고이團結을ᄯᅥ여놋코ᄂᆞᆫᄒᆞᆫ일도圓滿히되지못ᄒᆞᆯ것이다그러기에農工商의發達됨 ᄯᅩ라셔經濟가ᄯᅩᄒᆞᆫ크게發展이된것은事實이되나니農工商에對ᄒᆞᆫ무슨組合무슨會社가잇셔々여러사름의資力을共合ᄒᆞ야비로소農工商業을잘發展식힘으로文化增進上에資本과힘을合ᄒᆞ야組合과會社가成立되고그에伴ᄒᆞ야衆人이營爲ᄒᆞᄂᆞᆫ共同事業도잘進行ᄒᆞᆯ것이다엇지農工商뿐이리오世上萬事와人間事業이모도다團結로되지오니ᄒᆞᆫ것이업다

一個人의힘으로ᄂᆞᆫ到底히ᄒᆞ지못ᄒᆞᆯ일이라도衆人의힘을合ᄒᆞ야ᄒᆞ면안될일이업스며ᄯᅩᄒᆞᆫ一人의힘을費ᄒᆞ야或은十年이나二十年이나려ᄂᆞᆫ일이라도衆人이一致協力ᄒᆞ면一年이나或은二年이면맛나고말것은구태여贅言을不待ᄒᆞ고라도잘알것이다우리朝鮮이今日에現狀에굿치고말것은實로그原因이團合치못한데잇ᄂᆞᆫ것이다五百年歷史를보면음으로來ᄒᆞᄂᆞᆫ일이만타政治上으로보나무엇으로보나다-團合치못ᄒᆞ고南北黨파東派西派의黨派ᄂᆞᆫ分離이되야紛爭과嫉妬로지내ᄂᆞᆫ結果에今日우리ᄂᆞᆫ가히말ᄒᆞᆯ수업ᄂᆞᆫ慘酷ᄒᆞᆫ狀態를쇠고말앗나니이것이우리의前提가되ᄂᆞᆫ一大例證이된다團合치못ᄒᆞ고分裂이되ᄂᆞᆫ것은거로々々猜忌ᄒᆞ고自己利益만暗算ᄒᆞ고自己主義만主張ᄒᆞ고理解치못ᄒᆞ고未信ᄒᆞ고嫉妬ᄒᆞᄂᆞᆫ데셔성기ᄂᆞᆫ것이다

그러기에成績보다敗績이만ᄒᆞᆫ후己過去事ᄂᆞᆫ心情에傷ᄒᆞᆷ으로畧之莫說ᄒᆞ고自此以後로우리의白衣同胞ᄂᆞᆫ一致團結ᄒᆞ여야되것다二千萬人이모다一몸ᄒᆞᆫ뜻이되면무슨일에成功을못ᄒᆞ며우리가希望ᄒᆞᄂᆞᆫ目的과無窮花를東山에서못이룰그ᄯᅢ가엇지遼遠ᄒᆞ리오더구나責任이重ᄒᆞ고큰일이만흔朝鮮의佛敎徒(現代事業場에立花佛敎靑年)ᄂᆞᆫ더욱비밀수업ᄂᆞᆫ것이다결—團結이되여야홀것이다일ᄒᆞᄂᆞᆫ데ᄂᆞᆫ무엇보다도團結力이第一位를차지ᄒᆞᄂᆞᆫ最重要物이될지니우리가—미일ᄒᆞ기를爲ᄒᆞ고目的을진ᄃᆡᆫ—이團結心을가져야될줄로밋노라即—八千僧侶가一人이라ᄒᆞ도可ᄒᆞ고一人이八千僧侶라ᄒᆞ여도맛당ᄒᆞ이다만큼잘團合ᄒᆞ고잘結集ᄒᆞ여야홀지니라

八、맛말、니가이글을쓰게된動機가어ᄃᆡ에잇ᄂᆞ냐ᄒᆞ면最近時代思潮에共鳴되야昨年以來로朝鮮到處에靑年會가成立되고ᄯᅩᄒᆞᆫ모든일에激烈ᄒᆞᆫ運動이이러나繼續進行ᄒᆞ며同時에佛敎靑年會도地方諸處에創立되야大々的으로活動ᄒᆞᄂᆞᆫ中이지만은만약不幸ᄒᆞᆫ말로圓滿ᄒᆞᆫ結果와向向을못보고그디로中途에굿치고만다ᄒᆞ면엇지ᄒᆞᆯ가ᄒᆞᄂᆞᆫ마암이잇기ᄯᅢ문에일ᄒᆞᄂᆞᆫ여러분과갓치걱졍ᄒᆞ고근심되ᄂᆞᆫ뜻으로ᄡᅥ이졔敢히文理가시연치못한이글을쓰게된것이다그러나잘되얏든지못되얏든지니ᄯᅡᄂᆞᆫ언제나잘살아볼가ᄒᆞᄂᆞᆫ誠意로ᄒᆞ얏셔고이제브터서나生活다운生活을ᄒᆞ여볼가ᄒᆞᄂᆞᆫ熱情으로ᄡᅥᄒᆞ얏스니여러분이한번읽그니시고마조잡엇다할지라도이되로ᄒᆞ고이되로된다ᄒᆞ면니의게對ᄒᆞ야셔ᄂᆞᆫ無上한幸福이될줄로싱각ᄒᆞ노라

以上에여섯가지의題目을들어셔말ᄒᆞᆫ것은니의推想으로한것이아니라우리의마암속에ᄯᅥ리집히숨어잇ᄂᆞᆫ實例를드러셔말한것이니以上에말ᄒᆞᆫ여섯가지의條目을如實히가지고恒久히實行ᄒᆞ도록決心ᄒᆞ여야만비로소朝鮮이文明ᄒᆞᆯ수잇슬것이고朝鮮의佛敎가大擴張ᄒᆞᆯ수잇슬것이다더욱將來일ᄶᅮᆫ으로當選될未來靑年과現今을에着手한現代靑年은뉘구니다이것이업고ᄂᆞᆫ안될줄로싱각ᄒᆞ노라(完)

密陽表忠寺靑年 會趣旨書

我東亞之佛敎가發源於印度ᄒᆞ고放光於世界ᄒᆞ야八萬四千의法門이廣ᄒᆞ고三千載의歷史가久ᄒᆞ도다、歷史ᄂᆞᆫ現今東西諸敎中第一位를占ᄒᆞ고出法門은大小乘權實圓乃至因果八天敎로委曲은蕪兼二敎와三乘漸의一乘頓파顯密別를示ᄒᆞ시고慧眼은三世를徹ᄒᆞ시며博愛ᄂᆞᆫ十類를包羅ᄒᆞ시며差別이平等으로宣傳ᄒᆞ사混虛空盡世界生靈으로ᄒᆞ야금樂園에安住케ᄒᆞ시니敎門之制度ᄂᆞᆫ繁々然圓滿ᄒᆞ고社會之程度ᄂᆞᆫ赫々然公々ᄒᆞ야圓融唇業은優劣을莫分이라百川之水가共歸一海ᄒᆞ고滿天之星이盡拱北斗라二十世紀靑年된이 [illegible] 捨佛陀而何ㅣ—며 [illegible] ᄒᆞ고社會를救ᄒᆞ다면 [illegible] ᄒᆞ고佛陀ᄂᆞᆫ靑年의安身立命處요 [illegible] 의實行에요社會ᄂᆞᆫ [illegible] 이라 [illegible] 方을顯ᄒᆞ야佛敎自由의 [illegible] 이再振於東亞ᄒᆞ니日佛敎靑年會라斯會也ᄂᆞᆫ敎會布敎之部ᄒᆞ고 [illegible] 之機關ᄒᆞ야使我 [illegible] 으로樂園에安住케 며 [illegible] 에彷徨ᄒᆞᄂᆞᆫ靑年同胞로ᄒᆞ여 [illegible] 安身立命處를指示ᄒᆞᄂᆞᆫ [illegible] 이로다 [illegible] ᄒᆞ라靑年同胞 [illegible] 을振興ᄒᆞ [illegible] 文明으로開ᄒᆞ모 [illegible] 의責任이라 [illegible] 不 [illegible] 우리의本 [illegible] 이라 [illegible] 萬四千의法門이엇지 [illegible] 에限 [illegible] 佛陀만稱ᄒᆞ리 [illegible] 光을放ᄒᆞ고佛라 [illegible] 古今에無礙ᄒᆞ며 [illegible] 一致라放光於世ᄒᆞ고布法門於列强ᄒᆞ야第二의佛라가될우리靑年은 [illegible] 진저 (密陽表忠寺)

發起人 金秉彥 趙漢月 金景明 李任龍 金敬五 金義憲

觀劇의所感

元山 松岳 洪泰洋「寄」

本月二十日夜元山同樂座에셔興行ᄒᆞᄂᆞᆫ聚星座金小浪一行의孝子劇을觀覽ᄒᆞ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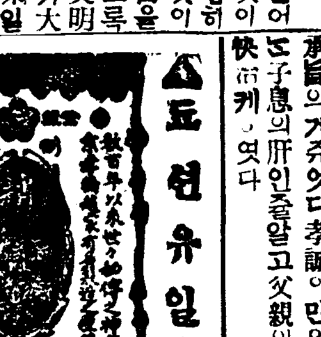
筆者가正刻를좀늣게七時나되야다밧셔그ᄯᅢᄂᆞᆫ劇場도入錐의餘地가업게ᄡᅡ지愛劇家의모임을볼ᄯᅢ에우리程度도漸次文明의길로나아감을ᄭᆡᄃᆞᆺ게되엿다그이들의興行ᄒᆞᄂᆞᆫ演題ᄂᆞᆫ孝子劇이요그全體ᄂᆞᆫ이孝子劇은總히七幕에分ᄒᆞ엿ᄂᆞᆫ듸一幕二幕順序의進行을밟바더욱々佳境에入ᄒᆞ니熱狂의聽衆은沈默을守ᄒᆞ며種々의喝采와拍手聲만場內를動케ᄒᆞ엿다

그런데演劇의보ᄂᆞᆫ中第二幕承旨鳳儀가自己의妻許氏에게말ᄒᆞ되「父親의病患으로因ᄒᆞ야問卜의結果오모것도아지못ᄒᆞᄂᆞᆫ幼兒의肝이안이면治病키不可能이라」ᄒᆞ여面上에愁心을ᄯᅴ고참으말ᄒᆞ지못ᄒᆞᆷ을表ᄒᆞᆯᄯᅢ에許氏ᄂᆞᆫ自己男便을向ᄒᆞ야「우리의子息은ᄯᅩ잇슬것이로되父主의一別은永遠이니速히求藥의方便을取ᄒᆞᆷ이可ᄒᆞ다」ᄂᆞᆫ말、두사ᄅᆞᆷ의손으마조잡엇다第 幕 丁의집이니承旨의命令을밧은칼을向ᄒᆞᆯᄯᅢ에丁의夫妻ᄂᆞᆫ豚의肝을드신ᄒᆞ여承旨의게주엇다孝誠이만은承旨ᄂᆞᆫ子息의肝인줄알고父親의病을快ᄒᆞ케ᄒᆞ엿다

其後세월의감을ᄯᅡ라一歲의幼兒이ᄂᆞᆫ達用은十六의星霜을보닐ᄯᅢ안에白丁의熱誠으로學問을熱心ᄒᆞ여登第의榮光을어더自己의祖父母안에모도여快樂이넘을ᄯᅡ게되엿다 이것이쯧幕이다

承旨一家의快樂과白丁夫婦의喜悅은즉으로觀劇者된우리로ᄒᆞ여금無限의快味와喜色을ᄯᅴ이게ᄒᆞ엿스며

그리고舞臺上에셔活動ᄒᆞ든俳者中으로觀覽者의同情을多大數로엇은俳者ᄂᆞᆫ座長金小浪女優黑豪政李幸山崔汝煥李鳳儀白星等이엿다ᄯᅩᄂᆞ이一行諸君의계付託ᄒᆞᄂᆞᆫ바ᄂᆞᆫ奮鬪에奮鬪를더ᄒᆞ여으모조록우리朝鮮劇界에頭角이되기를바란다



도련유입

중정선억

天一藥房

今般咸南永興郡邑內에永興分局을設立ᄒᆞ고新聞販賣及廣告取扱等一切事務를取扱케ᄒᆞ오니愛讀僉位ᄂᆞᆫ照亮ᄒᆞ시옵

朝鮮日報 興支局

總務 崔元煐

今般形便에依ᄒᆞ야淸津支局을廢止ᄒᆞ오니愛讀僉位ᄂᆞᆫ照亮ᄒᆞ시옵

今般咸北淸津府新岩洞에咸北支局을設立ᄒᆞ고新聞販賣及廣告取扱等에關ᄒᆞᆫ一切事務를取扱케ᄒᆞ오니愛讀僉位ᄂᆞᆫ照亮ᄒᆞ시옵

咸北支局(淸津府新岩洞)

支局長 尹炳厚

總務 張仁德

今般城津郡旭町에城津分局을設立ᄒᆞ고新聞販賣及廣告取扱等一切事務를取扱케ᄒᆞ오니愛讀僉位ᄂᆞᆫ照亮ᄒᆞ시옵

城津分局(城津郡旭町)

分局長兼記者 金和聲

總務 辛甲老

外務員 羅秉珏

今般咸北羅南生駒町에羅南分局을設立ᄒᆞ고新聞販賣及廣告取扱等一切事務를取扱케ᄒᆞ오니照亮ᄒᆞ시옵

羅南分局(羅南生駒町)

分局長 朴泰燮

今般會寧郡北門外에會寧分局을設立ᄒᆞ고新聞販賣及廣告取扱等一切事務를取扱케ᄒᆞ오니愛讀僉位ᄂᆞᆫ照亮ᄒᆞ시옵

會寧分局(會寧郡北門外)

分局長 金禹洽

今般富寧郡城門外에富寧分局을設立ᄒᆞ고新聞販賣及廣告取扱等一切事務를取扱케ᄒᆞ오니愛讀僉位ᄂᆞᆫ照亮ᄒᆞ시옵

富寧分局(富寧郡東門外)

分局長 石鍾益

總務兼記者 張錫斌

朝鮮日報 咸北支局

今般慶北尙州郡尙州面城東里에尙州支局을設立ᄒᆞ고新聞販賣及廣告取扱等에關ᄒᆞᆫ一切事務를取扱케ᄒᆞ오니愛讀僉位ᄂᆞᆫ照亮ᄒᆞ시옵

支局長 趙南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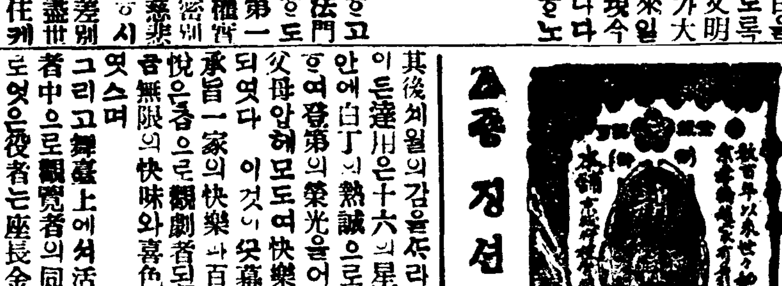
總務 金鍾元

記者 金演植

朝鮮日報社

陰歲暮大廉賣

京鄕諸位의愛顧ᄒᆞ신恩澤을萬一이라도報答ᄒᆞ기爲ᄒᆞ야陰曆本月卅日ᄭᆞ지ᄂᆞᆫ廉價를提供ᄒᆞ기로自決ᄒᆞ얏사오니紳士淑女學生小兒의需用되ᄂᆞᆫ靴鞋等을一次試用ᄒᆞ사陰曆설비음에光彩를내시기옹望ᄒᆞᆸ니다



京城鍾路四丁目當貳堂番地

同昌鞋店

主 趙明俊 謹告

理髮器具

價額

手機

特號 四圓五十錢

一號 四圓

二號 三圓五十錢

三號 三圓

面刀

特號 二圓

一號 一圓六十錢

二號 一圓二十錢

其他各種理髮器具도網羅完備

地方注文은本額의先金을要홈

京城樂園洞一七三番地

普榮商會

淋疾丸 靈効

定價 二日分五十錢

本丸ᄂᆞᆫ男女淋疾에靈藥으로勝脫炎、淋疾淋濁、尿道炎、沙淋、血淋、膏淋、勞淋等에特히神効가有ᄒᆞ야服用日로부터効力이偉大ᄒᆞ야三、四日內로完全根治됨

但地方에ᄂᆞᆫ代金引換酬應홈

京城鍾路二丁目

天恩堂大藥房

劉在元

電話二一七九番 二一五四番

梅毒丸

定價 特製二十日分一劑金三圓 十日分一劑金一圓五十錢

本丸ᄂᆞᆫ男女梅毒全治에靈藥으로多年累試累驗ᄒᆞ온바一二一三、期梅毒에와六〇六號注射로無効ᄒᆞᆫ者와水銀劑金石劑로無効ᄒᆞᆫ者와十年以上된年久ᄒᆞᆫ梅毒에와普通藥으로完治치못ᄒᆞᆫ時와其他擔病等에第一有効ᄒᆞ오며口瘡中毒이無ᄒᆞ야穩當治療에適當ᄒᆞ며服用日로부터偉大ᄒᆞᆫ効力이有ᄒᆞ야病毒을掃滅ᄒᆞ며永々祛根되야更不再發은先服諸氏에公認ᄒᆞᄂᆞᆫ바오本堂에셔擔保ᄒᆞᄂᆞᆫ靈藥이오

營業課目

荒貨各種 染料專門 捲烟草各種 石油燐寸 曹達 雪糖麥粉 石鹼各種 新舊雜貨

地方代金引換迅速酬應홈

京城南大門市場內

順泰號

主 趙性元 白

特別廣告

陰年末이갓가옴으로左記物品을特別廉價로酬應ᄒᆞ오니자셔히보시고속々히쥬문ᄒᆞ시옵

京城小廣橋

崔昌植洋靴店

南大門通一丁目二二番地

世界平和를告ᄒᆞᆫ後第二年의新春을迎ᄒᆞ게되얏나이다

我半島의同胞兄弟姊妹와갓치이元朝의屠蘇盃로ᄡᅥ平和의曙光을睹할가ᄒᆞ나이다

本店은開業ᄒᆞᆫ지貳個有星霜의顧客本位에主張下에서業務가年復年擴張ᄒᆞ게됨을得ᄒᆞᆷ은江湖諸君子의賜假ᄒᆞᆫ德이라ᄒᆞ야過去의厚誼를深謝ᄒᆞᄂᆞᆫ同時將來永遠히德音을垂賜ᄒᆞ심을바라고願ᄒᆞᄂᆞᆫ바이외다이懇望을가지고新年을迎ᄒᆞᄂᆞᆫ本店一同은僉位의愛顧ᄒᆞ심을萬의一이라도報答키爲ᄒᆞ와品質을極히選擇ᄒᆞ옵고工匠의技術을다ᄒᆞ와堅固ᄒᆞ고貌樣이美麗ᄒᆞᆫ製造ᄒᆞ와陰曆歲暮々지特別廉價로迅速酬應하갯사오니多數注文ᄒᆞ심을바라나이다

地方에ᄂᆞᆫ引換代金으로酬應ᄒᆞ옵고詳細事項은本店에來問ᄒᆞ시옵

京城府仁寺洞三十番地

東文堂新聞部

電話二〇四九番

朝鮮日報京城販賣所

至急 高麗人蔘大賣出

雪寒時下陳者 貴體健康ᄒᆞ심을願祝ᄒᆞ오며今月十五日은即本商會의創立滿四個年紀念日也라 本日을刻心祝賀키爲ᄒᆞ야以小酌으로感謝禮를表코저ᄒᆞ오나但雲樹遠隔地方故로事勢不得已本場所販賣品高麗人蔘을但一個月間限ᄒᆞ고大特別安價로酬應ᄒᆞ기로決心中이오니此好時期를勿失ᄒᆞ시고眷愛ᄒᆞ시든僉君子ᄂᆞᆫ一層繼續倍前請求ᄒᆞ시와쥬시심을掃門萬望ᄒᆞ옵나이다

朝鮮開城北本町蔘九九

高麗 人蔘開城商會

主任 孫得和

長電話三四番

麗字商標를注意ᄒᆞ시압

但地方에난引換代金홈

新式尺牘 全一册 定價參拾五錢

註解附音

文明이漸次로向上되고事務가時日로繁忙한此際를當ᄒᆞ야셔ᄂᆞᆫ凡百事爲가簡明容易홈이主要가되ᄂᆞᆫ故로本館이此에留意ᄒᆞ야多大ᄒᆞᆫ硏究의結果尺牘界의唯一無二한註解附音ᄒᆞᆫ新式尺牘이出版되오니體制가極히簡明ᄒᆞ야如干의文字를解得ᄒᆞᆫ者라도能히無師自通ᄒᆞ며效果가有ᄒᆞᆫ句語와文章이委曲硏娟ᄒᆞ야殆히鮮奇의感이有ᄒᆞ오리니愈位ᄂᆞᆫ一次購讀ᄒᆞ시면本館의空然ᄒᆞᆫ誇張이아님을充解ᄒᆞ시리다此外에도新舊書籍을無漏完備ᄒᆞ옵고特別廉價로迅速酬應ᄒᆞᆸ니다

發賣所 京城蓬萊町一丁目

博文書館

振替京城二〇二三番

老少腎氣 滋春丹

此方은古來로名醫家에셔秘傳ᄒᆞᆫ老少腎氣衰弱에特効가有ᄒᆞᆫ靈藥이오 ...

男女淋疾 五淋速 解藥

德盛堂 京城淸進洞二百十一番地 藥舖主 高用德 白

陰歲暮 廉價大賣出

最上等原料로泰西流行ᄒᆞᄂᆞᆫ카라式을製造ᄒᆞᄂᆞᆫ洋靴은獨米式洋靴가第一

商品目錄無代呈進

皮革洋靴・靴材料・洋品・各種大賣出

兼ᄒᆞ야本商會에서僉位의經濟的有益되고純全ᄒᆞᆫ洋靴을特約ᄒᆞ야各地에代理店을附設ᄒᆞ고特別廉價로都散賣ᄒᆞ오니多數愛用之至을切望

獨米式 洋靴商會

主 鄭桂鉉

京城鍾路通閣下便

振替口座五〇六一番

地方에ᄂᆞᆫ代金引換

壯筋骨 補氣血 大力丸

鵬程萬里ᄒᆞ야飛行機之威權과益壽百年ᄒᆞᄂᆞᆫ大力丸에効能滿天下

歡迎裡에權能을伸張ᄒᆞ야虛者를補ᄒᆞ며弱者를扶ᄒᆞ야人生에快樂을共得케ᄒᆞᄂᆞᆫ도다

主治効能

○壯筋補血 ○氣虛血枯 ○夜夢遺洩 ○飲食不化 ○先天不足 ○腎氣不足 ○精神困倦 ○面黃骨瘦 ○神經衰弱 ○陰虛火動

定價表

一個月分 四圓五十錢

二個月分 八圓五十錢

三個月分 十二圓

四個月分 十七圓

淋疾丸

京城西小門外四街側

製造本舖 洪濟堂藥房

主 李敏洪

電話二六五四番 振替口座京城四五八六番